

## 대순역학(大巡易學) 연구 서설(序說)

-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

박상규\*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순 신앙체계에 내재한 역학(易學) 담론을 ‘대순역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역(周易) 중심의 전통 역학 이론을 통해 대순 사상을 해석하는 데 머물렀으나, 본고는 그러한 외재적 해석 틀의 적용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증산·정산·우당의 경전과 훈시에 산재한 역학 텍스트를 발굴·분석하여 대순역학의 담론 구조를 시론적으로 제시한다. 분석 결과, 대순역학의 핵심은 회역(羲易) → 주역(周易) → 정역(正易)으로 이어지는 시대적 변역(變易)과, 이에 상응하는 신봉어천(神封於天) → 신봉어지(神封於地) → 신봉어인(神封於人)의 봉신(封神) 구조 변화로 요약된다. 특히 정역 단계의 신봉어인은 인간이 신명과 음양합덕을 이루어 우주 질서를 능동적으로 구현하는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실현을 의미한다. 금산사 미륵전의 도상적 상징, 정역팔괘의 수리 체계, 우당 훈시의 봉신 담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대순역학의 고유한 특질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대순역학이 단순한 이론 체계가 아니라, 신앙의 구원론·개벽론·수행론을 관통하는 종합적 사유 체계임을 확인하였다.

---

\* 아시아종교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parkthanks@hotmail.com

**주제어:** 대순역학, 변역(變易), 봉신(封神), 신봉어인(神封於人), 신인  
조화(神人調化), 정역(正易)

- I. 시작하며
- II. 대순역학 정립을 위한 선행 담론 비평
- III. 대순역학 텍스트와 담론 구조
- IV. 대순역학 담론의 특징
- V. 나가며

## I. 시작하며

대순 신앙의 기저에 특유의 역학(易學) 담론이 중추적인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순종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담론의 구체적인 층위와 고유한 특질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물론 기존 역학 이론이나 철학적 관점에서 대순 신앙과 사상을 분석해 온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기성 역학의 철학적 프레임을 대순 사상에 투영하여 해석하는 시도에 국한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석적 결과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넘어, “과연 기존 역학의 지평 내에서 대순 신앙과 사상을 분석하는 방식이 그 본연의 진면목을 포착하는 데 적절한가?”라는 근본적인 회의에서 출발한다. 즉, 기성 역학의 틀로 대순 신앙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순의 경전과 텍스트가 발신하는 고유한 역학 담론을 발굴·재구성함으로써 대순역학의 지평에서 신앙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대순 사상 연구가 주로 교리, 역사, 의례적 접근에 치중됨으로써 사상적 원형(原型)으로서의 역학적 토대, 즉 특유의 역학 담론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했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대순종학의 근간이 되는 우당(牛堂, 1917~1995)의 훈시에는 독자적인 역학 담론이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교하게 연의(衍義)하여 신앙체계 전반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는 대순 신앙의 핵심인 증산의 천지공사(天地公事)가 개벽(開闢)을 지향하며, 이 개벽이 변역(變易)<sup>1)</sup>의 논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순역학의 텍스트와 담론 구조에 대한 종교학적 서술이나 탐색이 부재했다는 사실은 대순종학 연구자들에게 깊은 학술적 반성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비판적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대순역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텍스트와 참고 자료를 정리·확정하고 담론 구조의 체계를 서술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즉, 대순진리회의 경전 및 관련 문헌에 나타난 역학 담론을 포착하여 분류·분석함으로써 ‘대순역학’의 담론 체계를 시론적으로 제시하고 그 고유한 특징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증산, 정산, 우당의 서사와 교설을 관통하는 역학 텍스트를 발굴하여 그 담론 체계의 골자를 소개하는 작업이 본고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선행 연구 성과를 비평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대순역학’의 독자성 확보는 기존 역학의 관점에서 도출된 해석들이 대순의 세계관과 필연적으로 노정하는 불일치와 모순을 논리적으로 증명함으로써 비로소 학술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

1) 변역(變易)은 주로 천지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현상계의 가변성과 동태적 질서를 함의하고 있는 용어이지만 본고에서는 시대에 따른 역의 변화를 일컫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다. 아울러 이러한 검토는 역설적으로 ‘대순역학’의 개념적 외연과 담론적 구조를 개괄적으로 조망하는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 선행 연구들에 대한 비평적 고찰을 통해 ‘대순역학’ 정립을 위한 논의의 초석을 다지는 작업으로 본론을 시작하고자 한다.

## II. 대순역학 정립을 위한 선행 담론 비평

본격적인 선행연구 검토에 앞서, 후술할 논의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이 대순종학의 학문적 정립 과정에서 역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사실에 기인함을 밝혀둔다. 즉, 여기서 제기되는 한계들은 연구자들이 일차 텍스트에 접근하기 어려웠거나 교학적 연구를 충분히 참조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본고의 비판적 고찰은 선행 연구 자체에 대한 소모적 비평이라기보다, 본 연구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론적 작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학술적 영역에서 대순 신앙체계를 역 철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의 상당수는 대순진리회의 종지(宗旨) 중 하나인 ‘음양합덕(陰陽合德)’의 해석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음양 이론이 주로 『주역』과 그 주석서 및 연구서들에 중심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중 초기 연구에 해당하는 「음양합덕 일시론(一試論)」(1997)에서<sup>2)</sup> 윤재근은 ‘음양합덕’의 독립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노장 철학의 도덕 개념을 인용하는 한편, 『주역』 「계사전」의 “음과 양이 그 덕을 합하여, 강(剛)과 유(柔)가 형체를 갖게 된다(陰陽合德而剛柔有體)”는 구절을 근거로 ‘음양합덕’을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주도하는 객관적 법칙이자, 구

2) 윤재근, 「음양합덕 일시론」, 『대순사상논총』 2 (1997), pp.355-373.

체적 사물의 형체를 완성하는 실천적 원리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관점에서 볼 때, 윤재근의 논의는 『주역』 철학의 틀 안에서 대순 사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음양합덕’의 연원을 『주역』 「계사전」에서 찾고자 한 시도는 대순 종지의 학술적 기반 확보에는 기여했으나, 대순 신앙 고유의 ‘능동적 변역(變易)’의 성격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 신앙의 층위에서 ‘음양합덕’은 주어진 정태적 조화의 법칙이 아니라, 상제 증산이 천지 공사를 통해 불균형한 도수를 해체하고, ‘정음정양(正陰正陽)’의 신질서를 수립해 나가는 동역학적(dynamic)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분석은, 상제의 개입에 의한 ‘도수(度數) 교정’과 그로 인한 ‘변역’의 논리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영진의 「대순사상의 역학적 조명」(2009) 역시, 『주역』의 음양 이론을 통해 대순 사상의 철학적 의미를 탐색한 연구이다.<sup>3)</sup> 그는 ‘음양합덕’을 ‘음양대대(陰陽對待)’의 원리와 연계하여 ‘억음존양’의 위계 질서를 극복한 평등적 음양관으로 조망하였다. 하지만 그의 분석 또한 대순 신앙과 사상 고유의 역학 담론을 『주역』이라는 틀 안에 종속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대순 신앙에서 ‘음양합덕’은 단순히 『주역』 철학의 음양 대대성 원리의 계승이나 재해석이 아니다. 대순 신앙에서 『주역』은 ‘양(陽) 중심의 편향성’으로 인해 현실 세계의 왜곡을 초래한,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음양대대’의 논리는 음양합덕의 정태적 측면만을 포착할 뿐, 주체적 개입과 도수 교정이라는 핵심 동역학과는 일정한 거리감을 노정한다.

정병화는 「대순사상의 대대성 원리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2019)에서 『주역』의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를 공시적 관점에서 해

3) 최영진, 「대순사상의 역학적 조명: 종지(宗旨)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0 (2009), pp.169-191.

석하며, 음양합덕을 단순한 이분법적 결합이 아닌 상호침투적 관계로 이해하려 했다.<sup>4)</sup> 이 연구는 대순의 역학 담론을 인식론적·윤리적 층위로 확장시켰다는 성과가 있으나, 여전히 대순 신앙 고유의 변역 논리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대순의 음양합덕은 단순한 인식적 포용을 넘어 정음정양의 신질서를 창조하고 구현하는 구체적 실재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김연재는 「천지개벽의 역학적 사유에서 본 대순사상의 후천개벽과 선협주의적 세계」(2023)에서 대순사상의 핵심인 ‘후천개벽’을 서구 철학의 ‘선협주의(transcendentalism)’와 대비되는 동양적 ‘선협주의(pre-experientialism)’의 틀로 분석하였다.<sup>5)</sup> 그는 특히 『주역』의 건곤 상관성을 통해 개벽의 역학적 기반을 제시하고, 상제의 천지공사를 기존 운수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지어 만드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는 주목할 만한 시도이나, 근대 철학적 개념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대순 신앙의 동역학적 실체가 지나치게 추상화될 위험이 있다. 그가 정의한 개벽은 『주역』 「서괘전」의 논리에 기대고 있으나, 대순 신앙에서의 개벽은 단순한 질서화를 넘어 선천의 역학 도수를 전면적으로 변혁하는 실제적인 결과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역 철학을 기초로 한 해석에서 벗어나, 대순 신앙 특유의 역학 담론, 즉 ‘대순역학’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연구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차선근의 「정역사상과 대순사상의 비교연구」(2010)를 들 수 있다.<sup>6)</sup> 이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학술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대순 신앙이 자연 도수 중심의 『정역』과는 달리, 강증산이라는 최고 주재자의 주체적 개입에 의해 변역이 실현된다는

4) 정병화, 「대순사상의 대대성 원리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 『대순사상논총』 42 (2019), pp.63-90.

5) 김연재, 「천지개벽의 역학적 사유에서 본 대순사상의 후천개벽과 선협주의적 세계」, 『대순사상논총』 46 (2023), pp.1-37.

6) 차선근, 「정역사상과 대순사상의 비교연구: 우주론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0 (2010), pp.35-59.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순역학의 능동적 번역성을 부각시켰다. 둘째, 대순사상은 무극과 태극 개념에 인격적 신격을 결합하여 종교적 실재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대순역학이 단순한 수리·상수 체계가 아니라 신앙 체계임을 입증하였다. 다만, 그의 논의 역시 상대적 차이를 부각하는 비교 연구의 성격상 본격적인 체계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봉호의 『태극도통감』의 도상을 통해 본 대순사상의 선·후천 개념(2023)은 ‘대순역학’의 이론적 토대를 도상(圖像)을 통해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7)</sup> 그는 『태극도통감』 수서본에 제시된 팔괘도 도상과 해설을 분석하여 번역의 사유가 대순 신앙 내에서 어떻게 담론화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대순 텍스트를 적극 활용하여 교리를 시각적·수리적 도상을 도입하여 해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이나, 그가 근거로 삼은 문헌이 정산(鼎山)이나 우당(牛堂)의 사유를 반영한 공식 문헌이 아니라 1960년대 태극도 시기의 비공식 담론일 가능성이 크다는 고증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sup>8)</sup> 따라서 이를 보편적인 대순역학의 전형으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종합하건대,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기존 『주역』의 개념적 틀을 차용하여 대순 신앙과 사상을 해석하는 데 머물렀다. 이러한 접근은 대순의 텍스트가 발신하는 고유한 사유, 즉 ‘대순역학’의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한 것이 아니기에 실제 종교현상과는 유리(遊離)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산, 정산, 우당의 교설을 관통하는 독자적 사유체계를 ‘대순역학’으로 명명하고 그 구체적 담론 구조를 정립하고자 한다.

7) 이봉호, 『태극도통감』의 도상을 통해 본 대순사상의 ‘선·후천’ 개념, 『대순사상논총』 47 (2023), pp.65-103.

8) 박상규·박선민·이호열, 『태극도통감』 수서본 고증: 팔괘도와 해설을 중심으로, 『대순종학』 7 (2024), pp.1-28.

### Ⅲ. 대순역학 텍스트와 담론 구조

대순 신앙체계의 기저에 고유한 역학 담론이 내재해 있다는 점은 대순종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전과 주요 텍스트에 산재한 역학적 요소를 포착하여 이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조화하는 작업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이는 증산의 공사(公事)나 정산의 공부(工夫)가 고도의 암시와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학적 층위에 대한 선행적 이해 없이는 그 이면에 담긴 종교적 함의를 온전히 해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순종학은 증산의 공사와 정산의 공부에 대한 우당의 독법(讀法)을 그 지평으로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우당은 명확하게 증산과 정산의 유지와 유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훈시를 통해 남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당의 훈시를 분석하여 대순역학 담론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소개하는 작업을 우선하기로 한다.

우당의 1980~84년 훈시는 1984년 『대순지침』으로 편찬되어 발간되었고 그 이후부터 1995년까지의 훈시는 15편이 『대순회보』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sup>9)</sup>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훈시들에 비해 『대순지침』·『대순회보』의 역학 관련 내용은 매우 축약적이며 단편적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미공개된 부분을 중심으로 역학 관련 훈시를 모두 부록에 수록했다.

역학과 관련된 우당의 훈시는 훈시 전체로 본다면 많은 분량은 아니다. 하지만 역학이 언급된 맥락은 매우 중요하다. 주로 증산의 인신 강세의 의의, 그리고 우주 운행 법칙과 역의 관계를 변역(變易)의 관점에 입각해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순 신앙체계의 핵심이라 할 증산 강세의 원인과 배경 및 우주의 법리를 역학 담론으로 설명했다

9)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3; 대순진리회교무부, 『훈시: 대순회보훈시 15편』 (여주: 대순진리회출판부, 2016), p.2 참조.

는 사실은 그 신앙체계와 사상의 해석에 있어서 대순역학의 관점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우당의 역 사상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된다.

- ① 복희-용마(龍馬)-하도-복희팔괘 · 회역-목신사명-춘운-신봉  
어천-천존시대
- ② 문왕-신귀(神龜)-낙서-문왕팔괘 · 주역-화신사명-하운-신봉  
어지-지존시대
- ③ 증산-금산사-술 · 미륵-정역팔괘 · 정역-금신사명-추운-신봉  
어인-인존시대

위와 같은 우당의 역학 담론과 궤를 같이하는 대표적인 텍스트로는 『채지가』를 들 수 있다. 『채지가』는 민간에서 전승되던 가사로 1967년 태극도에서 간행된 것이 최초의 출판본이다.<sup>10)</sup> 하지만 나타난 시기와 내용으로 본다면 구전되던 가사의 원형을 정산이 창도한 ‘무극도’에서 채록하고 체계화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sup>11)</sup> 『채지가』는 비록 공식 경전은 아니지만 우당이 태극도를 영도하던 시기와 대순진리회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판된 한글 가사(歌辭)라는 점에서 정산에 의해 그 경전적 성격이 인정된 문헌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채지가』에 나타난 역학 관련 텍스트 역시 대순역학의 담론을 위

10) 채지가가 내용상 증산종단의 가사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가사나 수운가사로 분류된 원인에 대해서는 박병훈, 「〈채지가〉 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3 (2017), pp.99-118 참조. 『채지가』는 우당이 종단을 영도하던 시기에 총 2회 간행되었다. 1967년에는 태극도에서, 1978년에는 대순진리회에서 출판되었다. 편찬실 편, 『채지가』 (부산: 태극도본부, 1967); 『채지가』 (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1978) 참조.

11) 홍범초는 증산종단에 전해진 『채지가』의 전래 경위를 조사하여 1910년대에 이미 『채지가』가 민간에 전해지고 있었다고 추측한다.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동학가사』에는 김광순 교수가 경북지방에서 발굴한 필사본 가사 10편을 수운가사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사에도 『채지가』와 동일한 가사 6편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본다면 『채지가』는 1910년대를 전후로 하여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유포된 가사라고 할 수 있다. 정산의 무극도 포교가 1920년대 경북지방에서 가장 활발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민간에 전승되던 가사를 무극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은 높다. 홍범초 엮음, 『남조선 뱃노래』 (서울: 한누리미디어, 2000), pp.12-14; 최원식, 「동학가사 해제」, 『동학가사 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p.14; 『동학가사 I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p.349, pp.378-451 참조.

해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채지가』 중 「칠월식과」 부분에는 회역, 주역, 정역을 시대에 따른 역의 변화로 설명하면서 그 원리, 특징, 시대상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관련 내용은 부록에 수록했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정역과 동일하게 문왕팔괘를 수화기제로 본 점,<sup>12)</sup> 복희팔괘와 문왕팔괘의 중앙 수리를 9, 10과 5, 10으로 본 점 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채지가』 「칠월식과」에 나타난 역학 담론은 우당의 훈시와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한다. 이는 우당이 정산으로부터 전수받은 역학적 가르침이 『채지가』의 담론 구조와 밀접한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우당이 『채지가』를 직접 출판한 목적 역시 정산의 역 사상을 가사(歌辭)라는 친숙한 형식을 빌려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할 점은 『채지가』에는 명시되지 않은 독창적인 담론이 우당의 훈시에서 구체화된다는 사실이다. 우당은 번역이 우주적 변화로 귀결되는 구체적 공정(工程)으로서 ‘봉신(封神)’의 프로세스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역(易)의 변화에 따라 신명(神明)이 봉해지는 대상이 전이된다는 논리이다. 결국 ‘회역-신봉어천-천존시대’, ‘주역-신봉어지-지존시대’, ‘정역-신봉어인-인존시대’로 이어지는 핵심 체계는 도(道)인 무극[태극]에 의해 도수와 리(理)를 상징하는 역(易)이 변모하고, 그 결과 신(神)의 의지체가 재배정됨으로써 삼계가 변화 또는 개벽되어 신질서가 구축된다는 담론이다. 대순역학 담론의 종착지가 정역에 기초한 ‘신봉어인(神封於人)’, 즉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실현에 있음이 여기서 드러난다. 따라서 증산과 정산에 관련된 텍스트 또한 정역과

12) 문왕팔괘는 이남감북(離南坎北), 즉 이상감하(離上坎下)로 화수미제(火水未濟)의 모양이다. 하지만 『정역』 「십오일언(十五一言)」에서는 “龍圖未濟之象 而倒生逆成 先天太極 [룡도미제지상 이도생역성 선천태극] 龜書既濟之數 而逆生倒成 后天無極 [귀서기제지수 이역생도성 후천무극]”이라 하여 낙서를 기제지수라 하고 있다. 『채지가』는 『정역』과 동일하게 문왕팔괘를 수화기제로 본다.

신인조화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산의 역 사유를 가장 명확히 투영하고 있는 문헌은 1956년 간행된 교단 최초의 공식 문헌인 『태극도통감』이다. 본 문헌은 우당의 책임하에 편찬되었으며 정산의 가르침을 정수로 담고 있다.<sup>13)</sup> 그중 신봉어인의 관점에서 ‘대순역학’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보여주는 ‘기원(起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道之謂道也者 定而無極하고 動而太極하야 太極이 生兩儀하고 兩儀生四象하고 四象이 生八卦하나니 太極之理生生之數는 無盡無量하야 變通造化之功德을 不可思議일세 惟我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 管領主宰 太極之天尊이시라 太極이 生兩儀者는 陰陽也니 陰陽者는 天陽地陰이며 日陽月陰이며 人陽神陰이 是也 오 又有 五行相生之理하니 金生水하고 水生木하고 木生火하고 火生土하고 土生金이 是也며 又有天地人三才之道하니 天開於子하고 地關於丑 人生於寅이 是也라 天地陰陽이 合德하야 萬物이 始生하고 日月陰陽이 合德하야 萬物이 育焉하며 人神陰陽이 合德하야 萬有가 歸依하나니 神無人이면 後無托而所依하고 人無神하면 前無導而所依하나니 故로 陰陽이 合德하고 三才가 確立하고 五行이 具備하야 調理乾坤하며 統御萬有하나니 至奧至密하며 至玄至妙하야 不可測度이라 九天上帝觀鑑萬天하시며 大巡三界하실새 神人依導의 因緣으로 人間에 下降하사 大道의 眞理眞法을 傳하사 九年間天地公事를 行하시고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帝位에 昇化臨御하시니 卽 姜甌山聖帝이시다 盛哉라 道也여 神人依導之眞理로 人神調化解冤相生道通眞境之理 具而備焉하니 愼哉勗哉어다<sup>14)</sup>

13) 『태극도통감』은 ‘도인대표 박경호 등’이 근초했다고 되어 있다. 도인 대표로 통감 편찬의 책임을 맡은 이가 박경호라는 의미이다. 박경호는 우당의 자(字)이기에 『태극도통감』은 정산의 명에 따라 우당의 책임 아래 초(抄)되고 편찬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정산이 감수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집필자는 정산이고 우당은 ‘도주약력’만을 초(抄)했다는 전승도 있다. 『태극도통감』의 편찬에 정산과 우당이 모두 관여했음은 분명하다.

14) 『태극도통감』(부산: 태극도본부, 1956), pp.7-8. 이후의 한문 번역은 필자가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수행한 것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도를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치면 무극(樞)이고 동(動)하여 태극이 되어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으니 태극 이치의 낳고 낳는 도수는 무진하고 무량하여 변통 조화하는 공덕(功德)을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음이다. 오직 우리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께서는 관령주제하는 태극의 천존이시니라. 태극이 양의를 낳음은 음양이니,

『태극도통감』외에도 정산의 역학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텍스트로 1920년대 무극도 시기부터 사용된 주문들을 들 수 있다. 정산의 역 철학은 특히 ‘음양경(陰陽經)’과 ‘운합주(運合呪)’에 집약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乾定坤順 乾陽坤陰 日行月行 日陽月陰 有神有人 神陰人陽  
 有雄有雌 雌陰雄陽 有內有外 內陰外陽 有右有左 左陰右陽 有  
 隱有顯 隱陰顯陽 有前有後 前陽後陰 天地之事 皆是陰陽中 有  
 成 萬物之理 皆是陰陽中 有遂 天地以陰陽 成變化 神人以陰陽  
 成造化 天無 地化無布於其下 地無 天功無成於其上 天地和 而  
 萬物暢 天地安 而萬象具 神無人 後無托而所依 人無神 前無導  
 而所依 神人和 而萬事成 神人合 而百工成 神明俟人 人俟神明  
 陰陽相合 神人相通 然後 天道成 而地道成 神事成 而人事成 人  
 事成 而神事成<sup>15)</sup>

음양이란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며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며 사람은 양이고 신은 음이라는 것이다. 또 오행이 차례로 생(生)하는 이치가 있으니 금(金)이 물을 생하고 물이 목(木)을 생하고 목(木)이 화(火)를 생하고 화(火)가 토(土)를 생하고 토(土)가 금(金)을 생한다는 것이며, 또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도가 있으니 하늘은 자(子)에 열리고 땅은 축(丑)에 열리고 사람은 인(寅)에 생하는 것이다. 천지라는 음양이 합덕하여 만물이 비로소 태어나고 일월이라는 음양이 합덕하여 만물이 길러지며 사람과 신이라는 음양이 합덕하여 만유가 귀의하니, 신은 사람이 없으면 그 뒤를 부탁하여 의지할 곳이 없고 사람은 신이 없으면 그 앗을 이끌어 의지할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음양이 합덕하고 삼재가 확립하고 오행이 구비되어 건곤(乾坤)을 조율하고 다스리며 만유를 통솔하고 제어하니 지극히 심오하고 조밀하며 지극히 현묘하여 가히 헤아릴 수 없음이라. 구천상제께서 만천을 관감하시며 삼계를 대순하시니 신과 인간이 의지하고 인도하는 인연으로 인간에 하강하셔서 대도의 진리와 진법을 전하시며 9년간의 천지공사를 행하시고 구천응원녀성보화천존의 제위에 올라 임하시니 곧 강증산 성제이시니라. 성대하여라 도여! 신과 인간이 의지하고 인도하는 진리로 인신조화와 해월상생과 도통진경의 이치가 두루 갖추어졌으니 삼가하고 힘쓸지이다.]

15) 『전경』(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문 1장 44절. [乾이 정해지면坤이 순응하니, 乾은 양이고坤은 음이다. 해가 가고 달이 가니,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다. 신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 神은 음이고 사람은 양이다. 수컷과 암컷이 있으니, 암컷은 음이고 수컷은 양이다. 안이 있고 밖이 있으니, 안은 음이고 밖은 양이다.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으니, 왼쪽은 음이고 오른쪽은 양이다. 감추어진 것이 있고 드러난 것이 있으니, 감추어진 것은 음이고 드러난 것은 양이다. 앞이 있고 뒤가 있으니, 앞은 양이고 뒤는 음이다. 천지의 일은 모두가 이 음양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만물의 이치는 모두가 이 음양 가운데 이루어짐이 있다. 하늘과 땅은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루고 神과 사람은 음양으로써 조화를 부린다. 하늘이 없으면 땅의 조화는 그(하늘) 아래에 베풀어 질 수 없고 땅이 없으면 하늘의 공은 그(땅) 위에 이루어 질 수 없다. 하늘과 땅이 화합해야 만물이 번창하고 하늘과 땅이 편해야 만상이 갖추어진다. 神은 사람이 없으면 그 뒤를 부탁하여 의지할 곳이 없고 사람은 神이 없으면 그 앗을 이끌어 의지할 바가 없다. 神과 사람이 사이가 좋아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乾坎艮巽坤離兌震 八位之精<sup>16)</sup> [건감간손곤이태진은 팔 위의 정이다.]

정산의 수도 과정에서 주문(呪文)은 핵심적인 위상을 점유하며, 그가 사용한 주문은 사유 체계의 정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양경’과 ‘운합주’에 나타난 답론은 정산의 역학 사상을 규명하는 결정적 준거가 된다. 특히 ‘운합주’의 팔괘 배열 순서인 ‘건·감·간·손·곤·이·태·진’은 김일부의 정역팔괘 배치와 일치하며,<sup>17)</sup> 이는 정산이 구상한 팔괘 체계가 궁극적으로 정역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음양경’의 사유 체계는 『태극도통감』의 ‘기원(起源)’과 마찬가지로 음양합덕에 따른 신인조화(神人調化)를 도의 완성으로 상정하고 있다.

정산이 상수역학(象數易學)에 기반한 삼통력(三統曆)을 활용하여 인류 역사를 해석한 지점 또한 주목을 요한다. 삼통력은 『주역』의 괘수(卦數)를 역법의 상수로 원용하는 것이 특징인데, 정산은 「전교」 선포 시 이 시간 주기를 차용하였다.<sup>18)</sup> 「전교」에서는 비록 구체적인 상수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삼통력의 주기를 통해 인류 역사의 순환을 설명하고 신주기의 도래를 암시한 것은 우주 법리의 근간에 『주역』의 상수 체계가 있음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삼통력은 『주역』 「계사전」 노양(老陽)의 수 9[천중수]와 노음(老陰)의 수 10[지중수]을 활용하여 19라는 숫자를 도출했는데 19라는 숫자는 하늘(陽)과 땅(陰)이 한 마디를 이루는 수(章)가 되며, 이를 통해 “장(章)은 천지의 합(合)이다”라는 형이상학적 논리를 구축했기 때문이다.<sup>19)</sup> 하지만 삼통

---

神과 사람이 협력해야 백가지 공이 이루어진다. 神은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은 神을 기다린다. 음양이 서로 합하고 神과 사람이 서로 통한 이후에야 하늘의 도가 완성이 되고 땅의 도가 완성이 된다. 神의 일이 이루어져야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이 이루어져야 神의 일이 이루어진다.]

16) 『전경』, 교운 2장 42절.

17) 복희팔괘[회역], 문왕팔괘[주역], 정역팔괘는 8괘의 배치가 모두 다르다. 이를 8괘를 외우는 순서는 모두 건괘부터 배열된 차례로 외우는데 운합주에 나타난 ‘건 감 간 손 곤 이 태 진’은 정역팔괘를 외우는 순서와 일치한다. 복희팔괘는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 문왕팔괘는 건 감 간 진 손 이 곤 태이다.

18) 『전경』, 교운 2장 26절, “七閏十九歲爲章 二十七章是會當.”

력 활용을 근거로 정산이 『주역』을 기반으로 대순 신앙체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산은 과거 역사를 『주역』의 상수로 설명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정산의 역학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문헌으로 『태극도통감』 수서본의 부록이 존재한다. 비록 이 문헌은 1960년대 필사본으로서 다수의 오탈자와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 대순종학의 공식 텍스트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역학 담론 연구의 보조 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하기에 본고의 부록으로 첨부한다.<sup>20)</sup>

부록에 수록된 도상 중 특히 ‘정역팔괘도’는 김일부의 원형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지닌다. 방위는 동일하나 괘와 중앙에 배치된 수리가 상이한데, 이러한 독자적 수리 배치의 기원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sup>21)</sup> 1960년대 교단 내부의 특정 담론을 반영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도상학적 전통은 1980년대 장병길의 『현무경』 해석에서도 동일한 수리 체계가 도입되는 등 일정한 계보를 형성해 왔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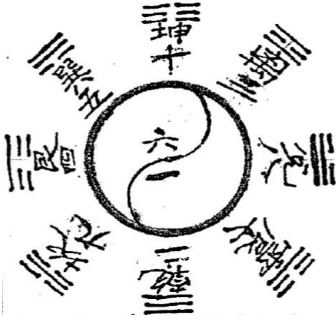
두 팔괘도의 또 다른 차이는 팔괘의 방향이 반대라는 사실이다. 김일부의 정역팔괘가 괘의 방향을 중심(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대응하는 괘들이 마주 보게 설계된 것과 달리, 수서본의 도상은 복희·문왕팔괘와 마찬가지로 밖을 향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마주 보는 괘가 서로 바라보는지 혹은 등을 지고 있는지는 역학적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문헌학적 정합성과 원형의 충실성을 고려할 때, 대순역학은 김일부의 정역팔괘도를 기반으로 정립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19) “…問法 十九 因爲章歲合天地終數得問法…”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 第一下.

20) 박상규·박선민·이호열, 앞의 글, p.23 참조.

21) 여기에 관하여는 이찬구, 「역과 현대사회: 한국 역학사상의 개관」, 『신종교연구』 5 (2001), pp.48-57; 이찬구, 『주역과 동학의 만남』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0), p.318 참조.

22)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p.102; 장병길, 『천지공사론』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pp.160-162 참조.



<그림 1> 수서본 정역팔괘도



<그림 2> 김일부 정역팔괘방위도

이상에서 고찰한 정산과 우당의 역학 관련 텍스트와 자료들은 대순역학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된다. 기존의 관습적인 역학 프레임이 아닌, 우당과 정산이 정립한 고유의 역학적 관점으로 증산의 공사와 행적을 분석할 때 비로소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새로운 층위가 발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산과 관련된 역학 텍스트를 확정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단순한 문헌 정리를 넘어 대순역학 담론의 실체를 구체화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본고에서 목적인 대순역학 연구의 서설이기에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 IV. 대순역학 담론의 특징

### 1. 변역(變易): 문왕팔괘에서 정역팔괘로

대순 신앙에서 변역(變易)은 우주적 질서의 재편을 상징하는 핵심 담론이다. 우당(牛堂)의 훈시에 따르면, 하도(河圖) → 낙서(洛書) → 금산사(金山寺)로 이어지는 계보는 회역 → 주역 → 정역이라는 변역의 역

사적, 신화적 근거를 형성한다. 증산의 시문에도 하도 → 낙서 → 금산사의 구조가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현시대 운도(運度)의 기원[조(祖)]이 낙서[주역]임을 밝히면서, 용마하도·신구낙서와 같은 변역의 징조와 상징이 금산사라는 구체적 공간에 출현함을 명시하면서 개벽이 잉태되었음을 은유하는 내용이다.

<u>厥有四象包一極</u>	사상은 일극을 감싸고
<u>九州運祖洛書中</u>	천하 운도의 근원은 낙서 중(中)에 있네.
<u>道理不暮禽獸日</u>	도리는 쇠하지 않아 금수(禽獸)에 해 비치고
<u>方位起萌草木風</u>	방위는 싹을 틔워 초목에 바람부네.
<u>開闢精神黑雲月</u>	<u>개벽의 정신은 검은 구름 속의 달이요</u>
<u>遍滿物華白雪松</u>	편만한 물화는 백설 속의 소나무.
<u>男兒孰人善三才</u>	남아 누가 삼재[天地人]에 능하리오
<u>河山不讓萬古鍾</u>	강과 산은 만고의 종을 사양치 않네.
<u>龜馬一道金山下</u>	<u>신구(神龜) 용마(龍馬)가 한 길로 금산 아래에 이르니</u>
<u>幾千年間幾萬里</u>	몇 천 년 간 몇 만 리인가!
<u>胞連胎運養世界</u>	포가 이어지고 태가 움직여 세계를 기르고
<u>帶道日月旺聖靈</u>	도를 품은 해와 달은 성령을 왕성케 하네. <sup>23)</sup>

위의 시가 명확하게 변역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금산사가 정역팔괘(이하 정역)의 상징임이 드러나야 한다. 하도와 낙서에서 복희팔괘와 문왕팔괘가 비롯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금산사와 정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학문적으로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 기존의 대순중학 연구가 정역을 후천의 도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금산사와 정역의 구체적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에는 미진했던 반면, 우당은 훈시를 통해 금산사 미륵전이 정역의 실질적 징조이자 상징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따라서 금산사 미륵전의 도상적·수리적 상징이 어떻게 정역으로 구체화되는지를 해명하는 작업은 대순역학 정립의 핵심적 과제가 된다.

우당의 훈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대순 신앙에서는 진표율사가 미

23) 『전경』, 공사 3장 39절. 한문 번역은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특전을 창건할 때 계시를 통해 용소라는 연못을 솟으로 메우고 그 위에 철로 된 술 대좌를 놓고 미륵을 세웠다는 전설이 교리적인 차원으로 정립되어 있다.<sup>24)</sup> 진표의 미륵전 창건은 정역이 나타나기 약 1200년 전에 이루어진다. 상당한 시차가 있지만 낙서의 출현이 문왕의 활동 시기보다 약 1000년 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순역학 담론에서 변역의 징조나 상징 출현은 그 실현 시점보다 1000년 이상 앞서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금산사 미륵전의 상징 체계 중 역사적 소실과 중창의 과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위상을 지켜온 요소는 용소(龍沼), 솟, 술, 미륵이다. 이 네 가지 상징물은 대순 신앙에서 교리 전개의 핵심적 기제로 기능하며, 대순역학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우선 용소는 하도와 낙서가 나타난 하수와 낙수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천지이치의 근원인 일육수(一·六水)이자 진리의 연원(淵源)을 상징한다. 따라서 용소 위에 수직으로 조성된 솟과 술, 그리고 미륵은 그 자체로 시대의 새로운 ‘도서(圖書)[하도·낙서]’적 위상을 지닌다.

솟은 화(火)를, 술[정(鼎)]은 물을 담아 조리를 하는 도구로 수화(水火)라는 음양을 상극이 아닌 상생으로 전환하는 존재를, 미륵은 술 위에 올려진 시루[증(甑)]를 상징하며 조리 기구로서의 특성에 근거하여 만유 조화를 이루는 존재를 각각 상징한다. 결국 금산사 미륵전은 수화로 대변되는 음양이 서로 융합하되, 상극의 충돌 없이 상생을 질서로 귀결되는 역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24) 이러한 교리는 증산의 금산사 미륵전에 대한 여러 언설에 의해 강화된다. 같은 책, 행록 2장 1절, 행록 5장 29절, 공사 2장 11절, 교운 1장 9절, 예시 1절, 예시 14절, 예시 15절 참조. 이 중 “상제께서 가라사대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고 하셨도다.”, “금산사에 상제를 따라갔을 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후 천하지 대금산(天下之大金山) 모악산하(母岳山下)에 금불(金佛)이 능언(能言)하고 육장 금불(六丈金佛)이 화위 전녀(化爲全女)이라 만국 활계 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 명월 금산사(淸風明月金山寺) 문명 개화 삼천국(文明開花三千年) 도술 운통 구만리(道術運通九萬里)란 구절을 외워주셨도다.”, “또 상제께서는 때로 금산사의 금불을 양산도(兩山道)라고 이름하시고 세속에 있는 말의 양산도와 비유하기도 하셨도다.” 등의 구절은 금산사 미륵이 곧 증산과 그 이법에 관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해 준다.

이러한 도상학적 원리는 정역팔괘의 구조적 지향점과 궤를 같이한다. 복희팔괘가 음양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응하는 괘들이 서로 등을 지고 있는 정태적(static) 배열이라면, 정역팔괘는 대응 괘들이 서로 마주 보도록 설계되어 음양의 실질적인 교류와 역동적(dynamic) 통합을 상징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정역팔괘의 중앙에 배치된 이천(二·天) 칠지(七·地)가 음양의 상극을 중재하여 상생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 핵심적 상수라는 사실이다. 즉 중앙 이천(二·天) 칠지(七·地)는 음양의 상극 작용을 중재하여 상생의 조화로 승화시키는 결정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물과 불을 중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륵전의 술·시루와 구조적·기능적으로 일치하며, 금산사 미륵전 자체가 정역팔괘의 원리를 공간화한 ‘입체적 도상’임을 입증한다.

술과 시루가 어떠한 수리적 공정에 의해 이천(二·天)·칠지(七·地)로 환치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되나,<sup>25)</sup> 2·7의 상수가 오행상 화(火)를 의미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증산이 불을 감춘다는 의미의 ‘화둔(火遁)’을 언급하며 스스로를 ‘삼이화(三離火)’라 칭하고, 불을 묻는 ‘매화(埋火) 공사’를 집행한 사실은 정역의 핵심 수리가 증산의 공사 서사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sup>26)</sup> 이러한 상수학적 전환은 『채지가』에서 복희팔괘의 중앙 수리를 9·10으로, 문왕팔괘를 5·10으로 상정하고 있는 담론과 연계하여 고찰할 때, 대순역학의 독자적인 우주론을 완성하는 중대한 학술적 과제가 될 것이다.

비록 증산이 금산사와 정역의 상관관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기록은 드물지만, 상술한 증산의 시문에 내포된 금산사의 상징성이 곧 정역(正易)의 법리로 귀결됨은 그가 천하 주유의 첫 행보에서 김일부(金

25)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금산사 미륵전 땅 아래 부분에 묻혀있는 솥은 화를 의미하기에 2·7의 수리를 지니게 되며 2·7이 중앙에 감추어진 정역의 수리와 통하는 바가 있다.

26) 『전경』, 예시 20절, 공사 3장 1절, 공사 3장 29절 참조.

一夫)를 대면했다는 서사적 사실을 통해 더욱 명확히 입증된다. 해당 서사에서 주목할 점은 증산이 일부(一夫)에 의한 정역의 출현을 자신의 천지공사를 위한 선행적 안배(按配)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역이라는 이념적 설계도를 실제 세계에 구현할 궁극적 사명이 증산 자신에게 있음을 암시한다. 증산이 스스로를 우주 질서의 재편을 주도하는 ‘서신사명(西神司命)’이자 ‘개벽장(開闢長)’으로 규정한 반면, 일부를 ‘청국명부(淸國冥府)’라는 특정 직책에 임명한 사실은<sup>27)</sup> 이러한 위계적 질서와 사명적 관계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금구 내주동을 떠나신 상제께서는 익산군 이리(裡里)를 거쳐 다음날 김 일부(金一夫)를 만나셨도다. 그는 당시 영가무도(詠歌舞蹈)의 교법을 문도에게 펼치고 있던 중 어느날 일부가 꿈을 꾸었도다.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일부에게 강 사옥(姜士玉)과 함께 옥경(玉京)에 오르라는 천존(天尊)의 명하심을 전달하는 도다. 그는 사자를 따라 사옥과 함께 옥경에 올라가니라. 사자는 높이 솟은 주루금궐 요운전(曜雲殿)에 그들을 안내하고 천존을 배알하게 하는도다. 천존이 상제께 광구천하의 뜻을 상찬하고 극진히 우대하는도다. 일부는 이 꿈을 꾸고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돌연히 상제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부는 상제께 요운(曜雲)이란 호를 드리고 공경하였도다.<sup>28)</sup>

상제께서 광구 천하하심은 김 일부의 꿈에 나타났으니 그는 상제와 함께 옥경에 올라가 요운전에서 원신(元神)이 상제와 함께 광구 천하의 일을 의논하는 것을 알고 상제를 공경하여야 함을 깨달았도다.<sup>29)</sup>

27) 같은 책, 공사 1장 7절, “상제께서 김 형렬의 집에서 그의 시종을 받아 명부공사를 행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조선명부(朝鮮冥府)를 전 명숙(全明淑)으로, 청국명부(淸國冥府)를 김 일부(金一夫)로, 일본명부(日本冥府)를 최 수운(崔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곧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고 말씀을 잇고 글을 써서 불사르셨도다.”

28) 같은 책, 행록 2장 2절.

29) 같은 책, 예시 3절.

다음은 증산이 『정역』의 시구를 원용하여 집행한 예언과 공사의 사례들이다. 이는 증산이 김일부의 계시를 통해 선포된 정역팔괘를 단순히 당대의 지적 성과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래할 우주적 법리[易]의 실체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특히 증산이 『정역』의 핵심 구절을 공사의 언어로 채택한 것은, 정역이 함축하고 있는 ‘금화정역(金火正易)’과 ‘후천개벽’의 원리를 자신의 천지공사 체계 내로 수용하여 실재적 운도로 확정 지으려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 즉, 일부에 의해 밝혀진 정역의 법리는 증산의 공사를 통해 비로소 인류의 삶과 우주적 질서를 규정하는 실천적 역(易)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문왕은 유리(美里)에서 삼백 팔십 사효를 지었고 태공(太公)은 위수(渭水)에서 삼천 육백개의 낚시를 버렸는데 문왕의 도술은 먼저 나타나고 태공의 도술은 이 때에 나오나니라」 하시고 「천지 무일월 공각(天地無日月空殼) 일월 무지인 허영(日月無知人虛影)」이라 하셨도다.<sup>30)</sup>

상제께서 정미년 선달 스무 사흘에 신 경수를 그의 집에서 찾으시니라. 상제께서 요(堯)의 역상 일월성신 경수인시(曆像日月星辰敬授人時)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일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知人)이 아니면 허영(虛影)이요, 당요(唐堯)가 일월의 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나니라」 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일월무사 치만물 강산 유도 수백행(日月無私治萬物 江山有道受百行)을 가르치고 오주(五呪)를 지어 천지의 진액(津液)이라 이름하시니 그 오주는 이러하도다.

新天地家家長歲 日月日月萬事知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  
明德觀音八陰八陽 至氣今至願爲大降  
三界解魔大帝神位願趁天尊關聖帝君<sup>31)</sup>

30) 같은 책, 예시 21절.

상기한 예언과 공사에서 증산은 김일부의 『정역』에 수록된 “천지비 일월공각(天地匪日月空殼), 일월비지인허영(日月匪至人虛影)”이라는 문구를 “천지 무일월 공각(天地無日月空殼), 일월 무지인 허영(日月無知人虛影)”으로 변용하여 사용한다.<sup>32)</sup> 우당과 정산의 변역 사상을 준거로 이 서사를 분석할 때 그 종교적 의미는 더욱 선명해진다. 이는 문왕에 의해 『주역』의 이법(384爻)이 정립되고 강태공에 의해 그 법이 실현된 역사적 전례나, 요임금이 일월의 법을 통해 역법(曆法)을 공포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즉, 일월로 상징되는 역(易)의 이치를 완전히 체득한 ‘지인(知人)’에 의해 새로운 천지가 개별될 것임을 예시한 것이다.<sup>33)</sup> 증산은 일부의 시를 빌려 정역의 출현을 공인함과 동시에, 이를 세계에 실현할 주체로서 ‘지인’의 존재를 암시하였다. 다만 『정역』에서의 지인(至人)이 일부 자신을 가리켰다면, 증산이 언급한 지인(知人)은 일부를 넘어 증산 자신 혹은 종통계승자를 지시하는 것으로 독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당 훈시의 역학 담론을 통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의(衍義)하자면, 이 서사는 세상에 출현한 변역의 징조와 상징을 통찰하여 새로운 이법을 확립하고, ‘봉신(封神)’이라는 고도의 영적 공정을 통해 이를 지상에 구현하는 성인(聖人)의 등극을 선포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증산이 봉신 신화의 주역인 문왕과 강태공의 도술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sup>34)</sup> 이들을 부각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결과적으로 증산의 이 공사는 주역에서 정역으로 이행하는 우주적 변역 과정과,

31) 같은 책, 교운 1장 30절.

32) 변용을 했지만 그 사유의 틀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3)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역(易)은 비늘이 있는 별레인 도마뱀(蜥易)을 상형한 것”이라는 설과 함께, “일(日)과 월(月)이 합쳐진 것(日月爲易)”이라는 위서(緯書)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蜥易, 蠃蜴, 守宮也, 象形。《祕書》說：日月爲易, 象陰陽也。

34) 『전경』, 예시 20절, “상제께서 「강 태공(姜太公)이 십년의 경영으로 낚시 삼천六百개를 버렸으니 이것이 어찌 한갓 주(周)나라를 흥하게 하고 제나라 제후를 얻으려 할 뿐이라. 멀리 후세에 전하러 함이니라. 나는 이제 칠십 이둔으로써 화문을 트니 나는 곧 삼이화(三离火)니라」고 말씀하셨도다.”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봉신 도수의 주체적 안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시 외에도 증산이 『정역』을 인용하여 공사를 행한 서사를 더 찾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태을주가 태인 화호리(禾湖里) 부근 숫구지에 전과되어 동리의 남녀 노소가 다 외우게 되니라. 상제께서 이 소문을 전하여 들으시고 「이것은 문 공신의 소치이니라. 아직 때가 이르므로 그 기운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시고 약방 벽상에 「기동북이 고수 이서남이 교통(氣東北而固守 理西南而交通)」이라 쓰고 문밖에 있는 반석위에 그림을 그리고 점을 찍고 나서 종이에 태을주와 김 경혼(金京諤)이라 써서 붙이고 일어서서 절하며 「내가 김 경혼으로부터 받았노라」하시고 갈·붓·먹·부채 한개씩을 반석 위에 벌려 놓으셨도다.<sup>35)</sup>

道通天地無形外 思入風雲變態中<sup>36)</sup>

“기동북이고수 이서남이교통[氣東北而固守 理西南而交通]”은 『정역』 금화이송(金火二頌)에 수록된 구절로, 정역 연구자들의 주류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는 낙서(洛書)의 역리가 정역의 역리로 전환됨을 상징한다. 본래 하도(河圖)에서 남서방에 위치했던 이칠화(二·七火)와 사구금(四·九金)이 자리를 바꾸며 낙서 체제로 전이되면, 수는 금과 마주하고 목은 화와 마주하게 되어 음양의 조화가 깨지고 오행은 상극(相剋)으로 순환하게 된다. 이러한 부조화의 역리를 형상화한 문왕팔괘(文王八卦)는 수화를 상징하는 감리(坎離)만이 마주 볼 뿐, 여타의 괘들은 음양의 편중과 상극의 조판을 노정한다. 따라서 낙서의 역리가 상생의 역리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도된 화(火)와 금(金)이 다시 제 자리를 찾는 ‘금화교역(金火交易)’의 과정이 필수적인데, 해당 구절은

35) 같은 책, 공사 3장 28절.

36) 같은 책, 교법 3장 47절.

바로 이러한 번역의 형세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증산이 이 문구를 인용하며 후천의 법리를 상징하는 태을주가 자신에게 전수되었음을 명시한 것은, 정역의 역리가 상제인 자신에 의해 실질적으로 구현될 것임을 시사한 서사로 풀이된다.

또한 “도통천지무형외[道通天地無形外]”는 김일부가 정명도(程明道)의 ‘추일우성(秋日偶成)’의 시구인 ‘도통천지유형외(道通天地有形外)’를 변용하여 공자와 자신의 경지를 차별화한 표현이다. 증산은 정명도의 시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일부의 변용된 표현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정역』의 맥락에서 볼 때, 이는 공자에 의해 완성된 『주역』이 현상적 세계[有形]의 이치에 국한되었다면, 정역은 그 너머의 근원적이고 무형(無形)한 경지까지 관통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sup>37)</sup> 증산이 이 표현을 공사에 사용한 것은 일부의 정역이 기존 『주역』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법리임을 확증함과 동시에, 자신의 도법이 지닌 절대적 위상을 역학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증산이 팔괘의 방위 배치를 정역의 체계와 동일하게 선언하며 집행한 공사 서사는, 그가 지향한 번역(變易)의 실체가 정역임을 실증하는 결정적 대목이다.

37) “聖哉 易之爲易 易者曆也 無曆無聖 無聖無易 是故 初初之易 來來之易 所以作也 夫子親筆吾己藏 道通天地無形外 伏羲粗畫文王巧 天地傾危二千八百年 嗚呼聖哉 夫子之聖乎 知天之聖 聖也 樂天之聖 聖也 親天之聖 其惟夫子之聖乎 洞觀天地無形之景 一夫能之 方達天地有形之理 夫子先之 嗚呼聖哉 夫子之聖乎 文學宗長 孔丘是也 治政宗長 孟軻是也 嗚呼 兩夫子 萬古聖人也 [성스럽도다 역(易)의 역(易)됨이여 역(易)이란 역(曆)이니 역(曆)이 없으면 성인(聖人)도 없고, 성인이 없으면 역(易)도 없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초초지역(初初之易)과 내래지역(來來之易)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자의 친필(親筆)을 내 안에 간직하니 도(道)가 천지(天地)의 형상(形象)이 없는 밖까지 통(通)했다. 복희씨는 거칠고 간략하게 획을 그었고, 문왕이 교묘하게 만드셨으니 천지가 기울어서 어지러워진 것이 2,800년이다. 아! 성스럽도다 공부자(孔夫子)의 성인(聖人)되심여. 하늘을 알았던 복희씨도 성인이요, 하늘을 즐거워하신 문왕도 성인이니, 하늘을 친하여 아버지로 삼은 성인은 오직 공자뿐인가 한다. 천지의 무형(無形)한 경지를 통관(洞觀)하는 것은 일부(一夫)가 능하고, 천지의 유형(有形)한 이치를 방달(方達)하는 것은 부자(夫子)가 먼저 했다. 아! 거룩하다. 공부자(孔夫子)의 성이시여! 문학(文學)의 종장(宗長)은 공자이고, 치정(治政)의 종장(宗長)은 맹자이시다. 아! 공자와 맹자는 만고(萬古)의 성인(聖人)이시다.] 이정호, 『원문대조 국역주해 정역』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8), pp.96-98.

상제께서 군향으로 떠나시기 전에 병선에게 「영세 화장 건곤 위 대방 일월 간태궁(永世花長乾坤位 大方日月良兌宮)을 외우라」고 명하시니라.<sup>38)</sup>

증산의 공사 체계에서 모든 법이 경(京, 서울)에서 비롯된다는 선언은 매우 중추적인 위상을 점유한다.<sup>39)</sup> 따라서 상기 서사가 서울 관련 공사 중 핵심적 사건인 ‘수륙병진(水陸竝進)’ 도수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있었다는 사실은, 해당 시문이 증산이 새롭게 정립할 진법의 글자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도에게 외우도록 한 이 시는 정역의 우주론적 구조를 고도로 압축하여 반영하고 있다. 시에 등장하는 건곤(乾坤)과 간태(艮兌)의 배치는 정역팔괘의 핵심인 ‘곤남건북(坤南乾北)’과 ‘간동태서(艮東兌西)’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역의 체계에서 건곤은 남북(上下)의 축을 이루어 우주의 본체인 ‘체(體)’를 형성하며, 간태는 동서(左右)에서 일월(日月)의 조화로운 운행처럼 음양의 작용인 ‘용(用)’을 담당하는 구조를 띤다.

결론적으로 이 시는 정역팔괘도의 구조를 언어로 형상화한 것이며, 해당 서사는 증산이 펼치는 새로운 법리가 역(易)의 층위에서는 정역의 이법과 완전히 합일하고 있음을 명확히 확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신봉어인(神封於人) : 상생(相生)에 의한 인신(人神)의 음양합덕과 신인조화(神人調化)

김일부(金一夫)는 계시를 통해 획득한 정역팔괘를 심화 연구하여, 정역의 실체가 곧 새로운 역법(曆法)인 ‘정역(正曆)’임을 천명하였다. 이는 1년이 360일로 정립되는 무윤력(無閏曆)의 세계를 의미한다.<sup>40)</sup>

38) 『전경』, 공사 1장 18절.

39) 같은 책, 예시 46절 참조.

40) 이정호, 앞의 책, pp.112 참조.

다음의 증산이 행한 공사는 증산 역시 일부의 정역(正曆)과 동일한 사유를 견지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상제께서 어느날 공신에게 「대천일해(大天一海)에 무근목(無根本)이 떠있고 가지는 열두가지 잎은 삼백 육십 잎이 피었으니 뚜렛이 일월(日月)이 희도다. 九 · 十월 세단풍(細丹楓) 바람잡아 탄금(彈琴)하니 슬프다 저 새소리 귀족도 불여귀(歸蜀道不如歸)를 일삼드라.」는 시조 한수를 외워주셨도다.<sup>41)</sup>

상제께서 그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차 공숙을 뽑아 따로 말씀 하셨는데 그는 소경이나라. 상제께서 「너는 통제사(統制使)가 되라. 일년 三百六十일을 맡았으니 돌아가서 삼백 육십명을 구하라. 이것은 곧 팔괘(八卦)를 맡기는 공사이니라」고 하셨도다.<sup>42)</sup>

정역의 관점에서 증산이 인용한 시조의 ‘열두가지’, ‘삼백육십 잎’은 1년 12개월 360일이라는 정역의 무윤력(無閏曆) 역도(曆度)를 상징하며, “일월(日月)이 희도다[白]”는 백(白: 금, 가을)의 역(易)인 『정역』의 도래를 암시한다. 이 시조를 외워 준 종도인 공신에게 붙였던 독조사(獨釣士) 도수가 강태공의 고사에서 기원한 것이며, 공신에게 맡기 고자 했던 일에 문왕의 도수가 있었다는 것으로 본다<sup>43)</sup> 이러한 해석은 신빙성이 크다. 봉신이 번역의 핵심 과정이고 문왕과 강태공의 신화와 전설에서 가장 중요한 기제도 봉신이기 때문이다.

증산이 종도 차공숙에게 1년 360일을 담당하는 통제사를 맡기면서 360명의 사람을 구해오라는 공사는 신봉어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순역학 담론의 기반이 되는 서사로 이해할 수 있다. 우당은 “정역시대에는 모든 운수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봉신을 한다. 앞으로는 신봉어인(神封於人)한다. ‘상통천문하고 하달지리하고 중찰인사’라고 도

41) 『전경』, 행록 4장 38절.

42) 같은 책, 교운 1장 53절.

43) 같은 책, 행록 3장 65절, 공사 2장 16절 참조.

통주(道通呪)에 있듯이, 앞으로는 사람이 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년·월·일·시·분·초·각까지 전부 사람이 맡는다. 천지를 다 운용해 나가는 것을 사람이 한다.”<sup>44)</sup>라는 훈시를 통해 사람에게 의해 우주, 즉 시공이 운용됨을 분명히 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증산이 팔괘를 인간에게 맡긴 공사는 정역시대의 역도(曆度)가 인간에 의해 실현되도록 안배한 것이며 우당은 그 원리와 과정을 번역과 봉신의 상관관계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정산(鼎山)의 사유 체계 역시 이러한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이법을 핵심으로 한다. 정산은 ‘신과 인간이 음양의 관계’이고 “인신음양(人神陰陽)이 합덕(合德)”하여야 “만유(萬有)가 귀의(歸依)”하게 되며 “신인 의도의 진리[人神依導之眞理]로 인신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진리가 구비[人神調化解冤相生道通眞境之理 具而備焉]”된다고 하여 도의 목적이 신인조화를 통한 신봉어인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45)</sup> 그의 주 문인 ‘음양경’에 나타난 “神과 사람이 사이가 좋아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神과 사람이 협력해야 백가지 공이 이루어진다. 神은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은 神을 기다린다. 음양이 서로 합하고 神과 사람이 서로 통한 이후에야 하늘의 도가 완성이 되고 땅의 도가 완성이 된다.”는 담론은 “神人和”, “神人合”, “陰陽相合”, “神人相通”의 개념을 사용하여 음양합덕으로서의 신인조화와 이에 의한 신봉어인이 공부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결국 대순역학에서 ‘신봉어인’은 단순한 신앙적 구호를 넘어, 상극의 이법이 지배하던 선천의 질서를 해체하고 인간과 신명이 상생의 원리 안에서 음양합덕을 이루는 실재적 번역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증산(甌山) 역시 음양합덕(陰陽合德), 즉 음양상합(陰陽相合)에 기초한 신인조화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함의한 글을 남긴 바 있다. 다음의

44)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도전 훈시』, 1993. 윤 3. 6.

45) 『태극도통감』 (부산: 태극도본부, 1956), pp.7-8 참조.

글은 그중 핵심적인 대목을 발췌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정산(鼎山)이 확립한 신인조화 중지의 사상적 연원을 확인할 수 있다.

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每事先觀始發處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  
 日用事物起居動靜 在於耳目口鼻聰明道理 耳屬水 目屬火 明白然  
 後萬事可知  
 水生於火 火生於水 金生於木 木生於金 其用可知然後 方可謂神  
 人也  
 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 在於陰陽 人可用陰陽然後 方可謂  
 人生也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sup>46)</sup>

위의 글 중 “인위양 신위음 음양상합연후 유변화지도야[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라는 구절은 음양합덕으로서의 신인조화를 직접적으로 표상한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음양의 상징인 수화(水火)와 금목(金木)의 상극 관계를 상생의 질서로 전환할 수 있는 신인(神人)의 개념을 제시한 부분이다. 음양의 대립에 의해 한쪽의 생존이 다른 한쪽의 소멸을 전제하는 상극적 질서[相剋]는 선천(先天) 인간 삶의 보편적 한계였다. 그러나 신인에 의해 음양이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동역학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신명과 인간이라는 음양의 주체가 본질적인 상합(相合)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대순역학이 지향하는 신인조화가 단순한 형이상학적 화합을 넘어, 상극의 이법을 상생의 진법(眞法)으로 변혁하는 실재적 능력의 구현임을 시사한다.

중산이 신인상합(神人相合), 즉 신봉어인(神封於人)을 실현하기 위해 음양의 상생 도수를 주체적으로 안배하였음은 『현무경』의 다음 구절을 통해 확증된다.

---

46) 『전경』, 제생 43절.

水火金木待時以成 水生於火 故天下無相克之理<sup>47)</sup>

해당 구절은 대순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이법 전환을 담고 있다. 전통적인 오행설에서 수(水)와 화(火)는 상극의 대표적 관계이나, 증산은 이를 ‘수생어화(水生於火)’, 즉 불에서 물이 생하는 도수로 새롭게 조율하였다. 이는 음양의 대대(待對) 원리에서 서로를 극하는 ‘대(對)’의 관계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생성하는 ‘대(待)’의 작용으로 치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도수의 교정은 천하에 고착화된 상극의 이법을 원천적으로 소멸시키고, 상생의 신질서를 확립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봉신(封神)의 대상이 천(天)·지(地)·인(人) 삼재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되는 원리는 대순 신앙의 시대관과 우주론을 관통하는 핵심 교리이다. 우당(牛堂)은 이러한 봉신 주체의 변천이 용마(龍馬), 신구(神龜), 금산사 미륵전이라는 도상적 매개체에 응축되어 있다고 통찰하였다. 즉, 하도(河圖)를 표출한 용마는 천상의 영수(靈獸)로서 신명이 하늘에 봉해지는 ‘신봉어천(神封於天)’의 천존시대를, 낙서(洛書)를 지고 나온 신구는 지상의 존재로서 신명이 땅에 봉해지는 ‘신봉어지(神封於地)’의 지존시대를 상징한다. 이에 대비하여 상생의 이법을 품은 술과 시루[甗]의 구조를 지닌 금산사 미륵전은 인간으로 화신(化身)할 미륵을 봉안한 인적 공간으로서, 신명이 인간에게 봉해지는 ‘신봉어인(神封於人)’의 인존시대를 상징한다.

증산(甗山)은 이러한 운도의 전이를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고 선포하며 인존의 우위를 명시하였다. 정산(鼎山)의 교법 역시 이러한 사유를 형이상학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태극도통감』에 따르면, 천지음양의 합덕으로 만물이 시생(始生)하고, 일월음양의 합덕으로 만물이 육성(育焉)되며, 최종적으로 인신음양(人神

47) 같은 책, 교운 1장 66절.

陰陽)의 합덕을 통해 만유가 귀의(歸依)한다. 이는 우당이 천존·지존·인존시대를 각각 ‘만물시생’, ‘만물장성’, ‘만물성취’의 단계로 정의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산은 천지음양의 합덕을 회역(羲易)의 시대로, 일월음양의 합덕을 주역(周易)의 시대로, 그리고 인신음양의 합덕을 정역(正易)의 시대로 통찰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순종지인 ‘음양합덕(陰陽合德)’은 단순히 천지 자연의 조화라는 일반적 의미를 넘어, 지인(知人) 곧 신인(神人)에 의해 신명과 인간이 인격적·실체적으로 상합하는 ‘인신합덕’의 차원에서 비로소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결국 대순역학의 체계 내에서 변역(變易)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대한 기제는 봉신(封神)이다. 대순진리회에서 최고의 의례로 중시되는 시학(侍學)·시법(侍法) 공부가 본질적으로 ‘신봉어인’의 과정을 실현하는 의례라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따라서 대순신앙에서 역(易)의 법리와 신(神)의 작용이 어떠한 상관성 속에서 사유되고 있는지는 대순역학 정립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절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 3. 상수 역학: 낙서 수리에 기반한 공사와 도수

증산의 공사에는 변역(變易)의 지향점인 정역 외에도, 기성 역학의 핵심 기체인 문왕팔괘(文王八卦)와 낙서(洛書)의 수리가 구체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빈번히 나타난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공사 내용이다.

류 찬명은 도통이 건 감 간 진 손 이 곤 태(乾坎艮震巽離坤兌)에 있으리라는 가르침을 상제로부터 받았느니라. 이 가르침을 받고 그는 큰 소리로 건 감 간 진 손 이 곤 태(乾坎艮震巽離坤兌)를 읽고 상제의 앞에서 물러나왔도다.<sup>48)</sup>

48) 같은 책, 교운 1장 47절.

상제께서 중도 여덟 사람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교훈 하시니라. 윤경은 상제의 말씀을 좇아 여덟 사람을 집에 모이게 하고 이를 상제께 아뢰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연락하다보니 아홉 사람이 모이게 되니라. 윤경이 상제께 아홉 사람이 모였음을 아뢰이니 상제께서 「무방하도다. 한 사람을 나의 시종으로 쓰리라」 말씀하시고 윤경의 집으로 오셨도다. 상제께서 등불을 끄게 하고 한 사람을 택하여 중앙에 세우고 나머지 여덟 사람을 팔방으로 세운 후에 「건 감 간 진 손 이 곤 태(乾坎艮震巽離坤兌)」를 외우게 하고 자리에 정좌한 중도 20여명으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 외우게 하셨도다. 무리들은 밤이 깊어지매 외우는 것을 그치고 등불을 밝히고 상제의 훈계를 들었도다.<sup>49)</sup>

그리고 상제께서 네 중도를 약방 네 구석에 각각 앉히고 자신은 방가운데 서시고 「二七六 九五— 四三八」을 한번 외우시고 중도 세 사람으로 하여금 종이돈과 같이 자르게 하고 그것을 벼룻집 속에 채워 넣고 남은 한 사람을 시켜 한쪽씩 끄집어 낼 때 등우(鄧禹)를 부르고 끄집어 낸 종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고 또 그 종이쪽을 받은 사람도 역시 등우(鄧禹)를 부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받은 그 사람은 역시 청국지면(淸國知面)이라 읽고 다시 먼저와 같이 반복하여 마성(馬成)을 부르고 다음에 일본지면(日本知面)이라 읽고 또 그와 같이 재삼 반복하여 오한(吳漢)을 부르고 다음에 조선지면(朝鮮知面)이라 읽게 하시니라. 이십 팔장과 이십 사장을 마치기까지 종이쪽지를 집으니 벼룻집 속에 넣었던 종이쪽지가 한 장도 어기지 않았도다.<sup>50)</sup>

左旋	四三八	天地鸚鵡主張
	九五—	日月龍王主張
	二七六	星辰七星主張
運	至氣今至願爲大降 無男女老少兒童咏而歌之 是故永世不忘萬事知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sup>51)</sup>	

49) 같은 책, 교운 1장 52절.

50) 같은 책, 공사 3장 28절.

51) 같은 책, 교운 1장 44절.

상기 공사들이 도통, 구궁(九宮), 28장·24장, 그리고 천지·일월·성신의 주관 등 대순 신앙의 중추적 법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역이 아닌 문왕팔괘와 낙서의 수리가 사용된 점은 일견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당(牛堂)의 훈시를 통해 그 내면의 역리를 분석하면 이러한 의문은 해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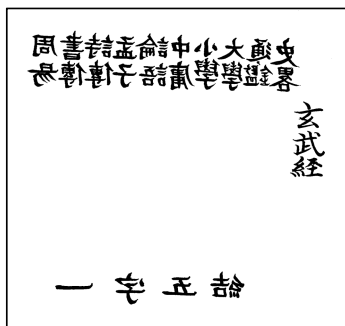
우당은 “지금은 신봉어지(神封於地)의 시기이기에 방위와 자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신명이 땅에 자리를 정하고 머물러 있다”고 밝히며 현재가 여전히 지존시대(地尊時代)임을 명시하였다. 즉, 변역의 징조를 인지한 지인(知人)이 출현하여 정역의 도수를 안배하였을지라도, 신봉어인(神封於人)이 실제적으로 완성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천지 운도는 여전히 낙서와 문왕팔괘의 역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증산의 공사에서 풍수(風水)를 이용해 지기를 갈무리하거나 신명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빈번했던 것은, 당대의 운도가 신봉어지의 도수 내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낙서의 수리를 활용한 공사는 정역이라는 신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현재 발을 딛고 있는 선천의 도수를 주체적으로 운용하고 재배치한 ‘과도기적 진법(眞法)’의 발현으로 독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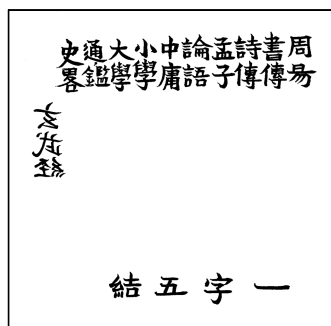
대순 신앙의 의례와 수도 체계에서 ‘15’라는 숫자가 점유하는 중추적인 위상은 낙서(洛書) 수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비로소 그 본연의 의미가 명확히 해독된다. 구천상제님을 비롯한 ‘15신위(神位)’의 구성이나 ‘15진주(眞主)’ 담론은 낙서 구궁(九宮)의 가로·세로·대각선의 합이 항상 15가 된다는 수리적 완결성에 기초한다. 치성 시 행해지는 15회의 타고(打鼓)와 진시(辰時)·술시(戌時)의 15회 타종 역시 이러한 낙서의 역리를 의례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이는 우주 운영의 기본 도수가 낙서의 질서 위에 구축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낙서와 『주역』에 기반한 법 체계는 증산이 남긴 『현무경(玄武經)』의 도상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현무경』 8면의 반서체(反書體)를 거울상으로 복원하면 조선 시대의 토지 주소 체계인 ‘일자오결(一字五結)’

의 형식이 나타난다.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한 글자에 다섯 결(結)을 배당하는 이 정교한 토지 구획 방식을 질서의 표상으로 독해한다면, 10권의 전적 중 가장 수위에 있는 『주역』 곧 낙서의 역리가 만물의 배치를 규정하는 최상위의 질서 체계임을 암시한다. 또한 『주역』 64괘의 총 효수(爻數)인 384효를 상징하는 종이돈 공사에서, 383매에 한 장의 쪽지를 더해 수치를 맞춘 행위는 『주역』의 수리적 질서를 천지공사의 기본 도수로 채택하여 우주의 법리를 재편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sup>52)</sup>



<그림 3> 현무경 8면



<그림 4> 현무경 8면 거울상

나아가 영대(靈臺) 건립과 관련된 다음의 공사는 대순역학이 지닌 상수역학적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一三五七九  
 二四六八十  
 成器局 塚墓天地神 基址天地神  
 運 靈臺四海泊 得體 得化 得明<sup>53)</sup>

52) 같은 책, 공사 3장 25절,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는데 양지에 글을 많이 쓰시고 종도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그 양지를 자르게 한 후 차례로 한 쪽씩을 불사르시니 그 종이쪽지가 도합 삼백八十三매라. 상제께서 그 수효가 모자라기에 이상히 여겨 두루 찾으니 한 쪽이 요 밑에 끼어있었다.”

위의 공사는 천수, 곧 양수인 일삼오칠구(一三五七九)와 지수, 곧 음수인 이사육팔십(二四六八十)의 체계로 기틀을 이루어[成器局], 천지의 신명을 재구성[塚墓, 基址]하고, 영대를 사해[천하]에 옮겨 정박시키는 도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해석의 개연성과는 별개로 증산이 영대 공사에 상수 역학의 수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대순역학이 단순히 관념적인 종교 담론에 머물지 않고, 상수(象數)라는 정밀한 수리적 법칙을 통해 우주적 신질서를 실재적으로 안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수역학적 특성은 송대(宋代)의 대학자 소옹(邵雍)의 사유와 깊은 연계성을 지닌다. 증산이 소옹을 지식의 층위에서 수위(首位)로 인정하고 그의 이론을 공사에 투영했을 뿐만 아니라,<sup>54)</sup> 정산 역시 소옹의 철학을 교설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은<sup>55)</sup> 대순역학의 계열을 확인시켜 준다. 우당이 도서(圖書)와 팔괘도를 역학 담론의 기반으로 삼았고 도서에서 팔괘도를 도출한 이가 소옹이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대순역학의 상수역학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상수역학의 우주론적, 천문학적 성격과 도교적 사유 체계 역시 대순 신앙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옹은 『관물외편(觀物外篇)』에서 다음과 같은 존재론적 생성 과정을 제시하였다.

太極一也 不動生二 二則神也 神生數 數生象 象生器 [태극은 1이다. 동(動)하지 않고 2를 낳으니 2는 신(神)이다. 신이 수(數)를 낳고 수가 상(象)을 낳으며 상이 기(器)를 낳는다.]

53) 같은 책, 공사 3장 41절.

54) 같은 책, 교법 2장 42절, 공사 3장 39절, “「동학가사(東學歌詞)에 세 기운이 밝혔으니 말은 소·장(蘇秦張儀)의 웅변이 있고 **맑은 강절(康節)의 지식이 있고** 글은 이·두(李太白杜子美)의 문장이 있노라.” 하였으니 「잘 생각하여 보라」고 이르셨도다.”, “道傳於夜天開於子 轍環天下虛靈 教奉於晨地關於丑 不信看我足知覺 德布於世人起於寅 腹中八十年神明.”

55) “又有天地人三才之道하니 天開於子하고 地關於丑 人生於寅이 是也라” 『태극도통감』, p.7 참조.

이 도식에 따르면 역의 근원인 태극에 의해 신(神)이 출현하고, 신의 작용에 의해 수(數)와 상(象)이 도출되며, 최종적으로 현상계의 만물[器]이 형성된다. 이를 대순역학의 관점에서 연의(衍義)하면, 우주의 변역(變易)은 필연적으로 신(神)의 위상 변화를 수반하며, 이러한 신의 변화는 수(數)와 상(象)의 변동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결국 변역의 징조와 상징은 상수(象數)의 체계를 통해 인간 세계에 주어지며, 이를 체득한 지인(知人, 聖人)에 의해 봉신(封神)의 공정이 이루어져 신천지가 실현되는 것이다. 증산과 정산의 공사가 대부분 ‘도수(度數)’와 ‘신명(神明)’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대순 신앙과 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대순역학이라는 상수학적 분석 틀이 얼마나 중차대한 위상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재확인시켜 준다.

## V. 나가며

본 연구는 그간 대순신앙과 사상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역학(易學) 담론의 위상을 재검토하고, 이를 ‘대순역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주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 역학 이론을 통해 대순 사상을 해석해 온 데 반해, 본고는 그러한 외재적 해석 틀의 적용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대순 신앙과 사상을 기존 역학의 틀 속에 포섭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순 신앙 내부의 사유 구조와 텍스트가 발신하는 역학 담론을 출발점으로 삼아 분석하기 위해 ‘대순역학’의 개념적 외연과 담론 구조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순 신앙을 기존 사상의 변형으로 간주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종교적 사유 체계로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대순역학 담론의 핵심은 상수역학에 기반한 회역-주역-정역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따른 변역과, 이에 상응하는 신봉어천-신봉어지-신봉어인의 봉신 구조 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역(易)의 변화가 단순히 자연 질서의 순환을 넘어 신의 귀속처가 전이됨에 따라 우주적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특히 정역 단계의 ‘신봉어인’은 인간이 우주 운행의 수동적 존재에서 탈피하여 신명과 합일해 질서를 구현하는 능동적 주체로 전환됨을 상징하는 핵심 개념이다.

우당의 훈시에 내재된 연원도통, 정역, 인존시대, 신인조화의 개념은 이러한 담론 구조를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이다. 훈시 내에서 역학은 추상적 우주론을 넘어 증산의 강세와 천지공사의 필연성을 해명하고, 후천 세계의 질서 원리를 규명하는 결정적인 설명 틀로 기능한다. 이는 대순역학이 단순한 이론 체계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구원론·개벽론·수행론을 관통하는 종합적 사유 체계임을 방증한다. 또한 『채지가』와 『태극도통감』의 서술 역시 우당의 훈시와 긴밀한 사유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이러한 담론이 교단 내부에서 공유되고 전승된 보편적 인식 구조임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정역을 가을의 운수, 완성의 단계, 상생의 질서로 이해하는 관점은 훈시에서 제시되는 금신사명, 인존시대, 지천태의 논리와 구조적으로 일치한다. 이를 통해 대순역학 담론이 훈시와 가사, 경전적 문헌을 가로지르며 일정한 사유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태극도통감』에 수록된 역학 관련 서술은 대순역학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태극-양의-사상-팔괘로 전개되는 생성 논리는 전통 역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귀결점은 신인조화와 도통진경의 실현에 놓여 있다. 이는 대순역학이 기존 역학을 단순히 계승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실천과 구원의 논리 속에서 재의미화된 역학 담론임을 분명히 한다.

결국 대순역학의 본질은 정역에 의한 도수(度數) 전환과 봉신 대상의 변화, 그리고 신봉어인을 통해 실현되는 신인조화의 질서에 존재한

다. 즉, 대순역학은 우주의 변화 원리를 해명하는 이론인 동시에 후천의 종교적 질서를 조직하는 논리적 사유 체계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담론 구조를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개별 개념이나 수리 체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수행한 텍스트 중심의 분석은 대순 사상 이해에 있어 역학 담론이 차지하는 중추적 위상을 가시화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토대로 대순역학은 향후 종학 연구의 주변부가 아닌, 사상 체계의 핵심을 해명하는 중심 연구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대순역학’ 정립을 위한 서설적 논문이라는 성격상, 몇 가지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우선 본고는 대순역학 담론의 전체 구조를 완결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그 존재와 문제 영역을 가시화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정역의 수리 체계, 팔괘 도상의 구체적 의미, 주문과 수행 체계에 내재한 역학 논리 등은 충분히 심층 분석되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본고에서 제시한 ‘대순역학’의 개념 역시 아직은 작업 가설의 성격을 지니며, 향후 보다 폭넓은 자료 검토와 비교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론은 확정적 주장이라기보다, 학문적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문제 제기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향후 ‘대순역학’ 연구는 몇 가지 방향에서 본격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역(正易)의 수리·도상 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팔괘 배치와 절후 도수 개념이 대순의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 연구는 대순역학의 이론적 실체를 구체화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주문, 공사, 의례, 수행에 내재한 역학적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대순역학이 추상적 사유 체계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종교적 삶의 질서를 조직하는 원리로 기능하고 있음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순역학을 단순한 사상사적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종교 담론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한국 신종교 전반의 역학 담론과의 비교 연구 역시 중요한 연구 전망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순역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조망함으로써, 대순 신앙이 한국 근현대 종교사 속에서 어떠한 사상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대순역학’이라는 연구 지평을 설정하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 본고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분석 틀을 토대로, 향후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들이 축적될 때, 대순역학은 대순종학 연구의 핵심 분과로서 그 학문적 위상을 분명히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부 록

### 1. 『도전 훈시』

… 복희(伏羲) 선천시대(先天時代)는 용마부도(龍馬負圖)요, 고(故)로 신봉어천(神封於天)이며, 고(故)로 천존시대(天尊時代)이며, 목신사명(木神司命)하야 목덕(木德)이 왕(旺)하니, 춘운(春運)으로 시획팔괘(始劃八卦)하였고, 주문왕(周文王) 후천시대(後天時代)는 낙서(洛書)요 금구부도출(金龜負圖出)하니, 신봉어지(神封於地)하야 지존시대(地尊時代)이며, 화신사명(火神司命)하야 화왕지절(火旺之節)이니 하운야(夏運也)라. 금번(今番)은 정역시대(正易時代)라 수기본야(水氣本也)요, 연원(淵源)의 생장원리(生長原理)로 신봉어인(神封於人)이며 고(故)로 인존시대(人尊時代)니, 연(淵)은 수(水)요 원(源)은 본야(本也)니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정립원리(正立原理)라. 원(源)은 즉 상제님(上帝任)이시다. … <1979. 1. 5>

… 구천상제님은 구월십구일생(九月十九日生)이신데 구월(九月)은 추절(秋節)이요, 금신사명(金神司命) 가을추(歌乙秋)이다. 구수(九數)는 구궁(九宮)이요, 구궁(九宮)은 우주(宇宙)이다. 십구일(十九日)에 십수(十數)는 음(陰)이요, 구수(九數)는 양(陽)이다. 음양이기(陰陽二氣)로 우주기간(宇宙之間)에 오신 의의(意義)이며, 십구일(十九日)은 또 음구양구수합이십팔수(陰九陽九數合而十八數)가 되고 남은 것이 일수(一數)이다. 고로 우주기간 하늘님으로 오신 이수(理數)가 분명하다. 또 신미(辛未)는 노방토(路傍土)<sup>56)</sup>인 고로 토생금(土生金)의 상생원리(相生原理)가 된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 목신사명(木神司命)에서 화신사명(火神司命), 화신사명(火神司命)에서 금신사명(金神司命), 가을추(歌乙秋) 결실기(結實期)에 정역(正易)이 되나니, 우리 한국(韓國)이 약소민족(弱小民族)으로 원한(冤恨)이 충만하다. 고로 해원을 위주로 상생의 원리와 상제님의 덕화를 퍼므로 세계가 공존공영하여 지상낙원의 선경이 건설되므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주국이 되는 것이다. … <1979. 윤 6. 24>

56) 육십 갑자의 경오(庚午)·신미(辛未)를 납음(納音)으로 이르는 말. 납음(納音), 즉 납음오행(納音五行)은 전통 역학에서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육십갑자(六十甲子)에 특정한 오행의 성질을 부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본래의 간지 오행과는 다른 층위의 에너지를 정의하며, 고대 음악 이론인 율법(律呂)과 천문 역법이 결합된 고도의 학술적 체계이다.

… 일년 12월이 운행이 된다. 삼(三)이 일(一) 계절(季節)이 된다. 사계절(四季節)이 삼수(三數)로 계지즉(計之則) 12월이 되니 이 사절(四節)에는 중앙수(中央數) 오수(五數)가 통제관장(統制管掌)하는 법이다. 오수(五數)는 토(土)다. 사수(四數)를 거론치 말라. 사수(四數)에는 오수(五數)가 아니면 아니 된다. … <1979. 윤 6. 25>

… 삼변진리(三變眞理)의 원칙(原則)을 각성하라. 내가 간단하게 언급한 바를 진리에 비추어 연구해 보아라.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이다. 복희선천은 천지비(天地否), 건남곤북(乾南坤北), 이동감서(離東坎西), 신봉우천(神封于天), 본춘(本春), 동남(東南), 용마(龍馬)요, 문왕후천은 수화미제(水火未濟)<sup>57)</sup>, 이남감북(離南坎北), 진동태서(震東兌西), 신봉우지(神封于地), 열음하(熱陰夏), 미완성(未完成), 금구(金龜)이며, 용화후천은 지천태(地天泰), 곤남건북(坤南乾北), 간동태서(艮東兌西), 신봉우인(神封于人), 가을추(歌乙秋), 완성(完成), 인신영부(人身靈付)라. … <1979. 7. 26>

…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도주님이 계승한다는 종통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하신 것으로 미륵불과 솔의 양산도(兩山道) 진리 밝혀 주심인데, 각 교과들이 금산사의 미륵불 신봉에만 관심을 모으고 미륵불을 받들고 있는 솔의 진리를 생각지 못하고 상제님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소치인 것이다. 천지의 이치가 일육수(一六水)에 근원(根源)하였기 때문에 선천(先天)의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역리(易理)가 다 수중(水中)에서 표출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용추(용소)를 솟으로 메우고 솔을 놓고 솔 위에 미륵불을 봉안한 것은, 중산(甌山)·정산(鼎山)의 양산출세(兩山出世)를 암시하여 도의 연원을 밝혀 놓은 것이다. 금신사명(金神司命)은 추절(秋節)이니 을(乙)을 노래하는 때[가을추(歌乙秋)]이므로 상제님께서 봉자(鳳字)를 친필(親筆)하신 뜻도 조을(鳥乙)을 밝혀 놓으심이며, 도주님께서 진주(眞主, 15歲)로 봉천명(奉天命)하시고 23세시에 득도(得道)하심은 태을주(太乙呪)의 본령합리(本領合理)요, 또 전경의 “十二月二十六日 再生身”은 12월 4일로서 일년운회(一年運會)의 만도(滿度)를 채우실 도주님의 탄생을 뜻하심이니라. … <1982. 윤 4. 24>

… 복희(伏羲) 선천시대(先天時代)는 용마(龍馬)가 하도(河圖)를 지고 나와서 천지이치(天地理致)를 뒀고, 고로 신봉어천(神封於天)이며 천존시대(天尊時

57) 수화기제(水火既濟)의 오기로 보인다.

代)이며, 목신사명(木神司命)하여 목덕(木德)이 왕(旺)하니, 춘운(春運)으로 시획팔괘(始劃八卦)하였고 만물이 시생(始生)하고, 주문왕(周文王) 후천시대(后天時代)는 신구낙서(神龜洛書)요 거북이 등에 그 이치가 있었으니 신봉어지(神封於地)하여 지존시대(地尊時代)이며, 화신사명(火神司命) 화왕지절(火旺之節)이니 하운(夏運)이며, 만물이 장성(壯盛)하고, 금번은 정역시대(正易時代)라 금산사 용추못에 연원도통(淵源道通)이며 수기본야(水氣本也)요, 신봉어인(神封於人)이며 인존시대(人尊時代)이고, 금신사명(金神司命)하여 육장금신(六丈金神)에 만물성취(萬物成就)이다. 즉 연원(淵源)의 연(淵)은 수(水)요, 원(源)은 본(本)이니 上帝님이시다. ... <1982. 윤 4. 26>

... 이 시간이 간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모레가 오는 것과 같이, 복희선천, 문왕후천, 용화후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봄·여름·가을로 이어지는 것이 천지자연의 이치인 만큼 억지로 만들 수도 없다. 태호복희씨가 개국 초의 임금이었는데 황하수(黃河水)에서 용마(龍馬)가 그림을 지고 나왔다. 복희씨가 그것을 보고 천지 이치를 알게 되었다. 이것이 하도(河圖)이다. 우임금 때는 낙수(洛水)에서 거북이, 신구(神龜)가 그림을 지고 나왔다. 이것을 보고 낙서(洛書)라고 한 것이다. 모든 이치가 물에서 나온 것을 말함이다. 그래서 금산사에 금불을 모신 것도 용추 못인 물에다 모신 것이다. 그러므로 연원(淵源)이라고 한다. 태호 복희씨 때 용마가 하도(河圖)를 지고 나왔으니 용마부도(龍馬負圖)라고 하고, 우임금 때 거북이가 글을 지고 나왔으니 신구낙서(神龜洛書)라고 하고, 이번에는 용추 못에서 연원이 시작되므로 연원도통이라고 한다. ... 복희선천에는 건남(乾南) 곤북(坤北) 리동(離東) 감서(坎西)였고, 문왕후천에는 리남(離南) 감북(坎北) 진동(震東) 태서(兌西)였으며, 용화후천에는 건남(坤南), 건북(乾北), 간동(艮東), 태서(兌西)가 된다. 그러므로 용화후천에는 지천태(地天泰)가 되고, 수명도 길어지는 것이다. 곤도운(坤道運)이 선다는 것은 땅이 크다는 것이다. ... <1984. 11. 6>

...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원리를 벗어나 그 수명이 존속되지 못하여 온 것은 만상(萬象)의 생성 변화가 천리(天理)·지기(地氣)·인사(人事)의 순환 섭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체(天體)는 장구(長久)하며 지구는 운동(輪動)하고 인생(人生)은 내왕무상(來往無常)하다. 하지만 강유지리(剛柔之理)를 받아 행하는 인간에서 도(道)가 밝혀진 까닭으로, 인생은 하늘로부터 받은 성리(性理)를 땅 위에서 바로 행한다. 이것이 수도요, 이제 수도하여 성도(成道)하는 성사재인(成事在人)의 인존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 <1985. 1. 1>

… 모든 도의 이치는 물에서 나왔다. 복희 선천에는 용마(龍馬)가 하도(河圖)를 지고 나왔고, 천지 이치를 하도로 판단하였다. 우임금이 물을 다스릴 때는 거북이가 등에 그림을 지고 나왔다. 이것이 낙서(洛書)이며 문왕 팔괘라 한다. 복희씨 때나 문왕 때의 천지 이치가 하도, 낙서에 있다. 천지의 이치가 물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에도 후천 정역(正易) 연원도통(淵源道通)이다. 도통은 거기에 있다. 용마나 신구(神龜)나 마찬가지로 모든 이치가 물에 있다. … <1987. 3. 30>

… 선천인 공자, 석가 때는 자리가 정해져서, 도통을 못한 사람은 원(冤)을 품었지만, 우리 일은 자리가 없어서 못하지 않는다. 1년 속에 사계(四季)가 있고, 12달·24절·360일이 있다. 하루 속에는 24시가 있고, 그 속에 분, 초가 있는데, 모두 자리가 된다. 지금까지는 만상의 모든 이치, 기운인 신이 하늘·땅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람에게 있다. 복희 때는 신봉어천(神封於天), 문왕 때는 신봉어지(神封於地), 지금은 신봉어인(神封於人)이 된다. 시·분·초까지 모든 자리를 사람이 맡고 사람에게 신이 봉해지는 것이다. 앞을 알고 뒤를 알아서 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음양에서 사상·오행이 나와서 사방(四方)으로 나가며, 시·분·초와 같이 천지를 둘러나가게 된다. 이 속에서 만물이 생활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다. … <1988. 10. 26>

… 연원(淵源)이란 원 근본을 말한다. 못 연(淵), 근원 원(源)으로, 못도 물이요, 원(源)도 물이다. 못 연(淵), 근원 원(源)에는 삼 수(彗)가 있다. 진리의 근원은 물에 있다. 옛날 복희(伏羲) 때는 용마(龍馬)가 황하(黃河)에서 하도(河圖)를 지고 나와 거기에서 진리를 깨달았고, 우임금 때 신구(神龜)가 낙수(洛水)에서 낙서(洛書)를 지고 나와 주(周) 문왕(文王)은 거기에서 천지의 이치를 깨달았다. 하도·낙서에서 진리가 나왔다. … <1989. 2. 8.>

… 지금 세상에서 평화, 인권을 주장하나 우리 진리가 아니고서는 평화,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크니 이제 인존시대라.”고 하시고, “옛적부터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달지리(下達地理)는 있었으나 중찰인의(中察人義)는 없었나니 이제 나오리라.” 하셨다. ‘상통천문(上通天文)하고 하달지리(下達地理)하고 중찰인사(中察人事)케 하옵소서’에서 중찰인사는 도통을 뜻하며, 이것은 앞으로 모든 권리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사람이 다 갖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사람이 가장 높아진다. 상제님께서 모든 인존도수를 해원상생 도수로 봐 놓으셨다. 그것을 사회에서는 평화, 대화라 말하는데, 그 시기가 오면 실(實)보다 허

(虛)가 먼저 동한다. 옛날에는 신봉어천(神封於天)으로 모든 권한을 하늘이 맡아서 행사하여 천존시대였고, 현재는 신봉어지(神封於地)로 땅이 맡아서 행사하니 지존시대다. 지금은 지존시대가 다 되었다 하나 이사 갈 때 방위 보고 묘 자리를 보는 등, 아직도 땅에 의존하는 것은 땅에서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신봉어인(神封於人)으로 이 권한을 사람이 맡아서 하게 된다. ...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현재도 새로워진 것이 많고 없어진 것도 많지 않으나? 지금은 지존시대지만 옛날보다 많이 인존시대가 되었다. ... 앞으로는 지천태(地天泰)의 정역이니, 땅이 제일 높고 그래서 음을 먼저 친다. 땅 운이 더 크다. 음양이라고 음부터 말하게 된다. 그것은 음의 기운이 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니 여자 운이 더 크다. 상제님 재세 시 공사 보실 때는 여자들 이름도 안 지었다. 여자들은 남의 집에 가지도 못했다. 현재는 남녀평등이다. 남녀동등권은 실제의 그들이 서지는 것이다. 실지 물건이 있으면 그늘(그림자)도 함께 있지 않으나? ... <1989. 3. 7>

... 복희(伏羲) 선천에는 신봉어천(神封於天)이어서 하늘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해나갔고 문왕(文王) 후천에는 신봉어지(神封於地)로 땅이 모든 걸 맡아서 해나가니 집 자리나 방위를 보았다. 이제는 신봉어인(神封於人)이다. 사람이 모든 걸 맡아서 해나간다. ... <1989. 5. 19>

...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듯이 앞으로는 정역시대이다. 지금은 천지개벽 이후 문왕 주역시대인데 그 원리는 음양난잡(陰陽亂雜)이다. 앞으로의 정역시대는 음양이 아주 순조롭게 된다. 순조로우면 만물이 화생한다. 어그러지면 난잡해지고 해원상생이 될 수 없다. 멸하는 것이다. 우리가 상제님의 정역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 <1991. 3. 6.>

... 옛날에는 모든 것을 하늘에 봉했고 지금은 모든 기운이 땅에 봉해져 있다. 그래서 방위를 보고 자리를 본다. 묘를 쓰는 데도 자리를 잘 써야 자손도 뻗고 죽은 사람도 잘되고, 또 산 사람도 집을 지으려면 자리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니 신봉어인(神封於人)이다. 옛날에는 신봉어천(神封於天)이고 지금은 신봉어지(神封於地)이며 앞으로는 신봉어인(神封於人)이다. 신명을 사람에게 봉하니 도통이라는 것이다. 후천에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해 나가고 사람에게 의해 돼간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 공부가 봄·여름·가을·겨울의 자리를 맡는 것인데, 공부 자리를 빠지게 되면 절후가 빠지게 된다. 봄이나 여름이 빠지면 천지가 안 된다. 그러므로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꼭 들어갈 사람이 필요하고 그 자리를 못 지키면 안 들어가느니만 못한 것이다. 1년 360일을 사람으로 짜는 것이다. 『진경』에 석가는 500명을 통케 하였고 공자는 72명을 통케 하였지만 상제님께서서는 닭은 바에 따라 누구나 다 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1년 360일이 체가 되며, 하루 안에는 24시간이 있고, 시간 안에는 분이 있고, 분 안에는 초가 있다. 후천에는 인간이 시, 분, 초 전체를 맡아서 행하니 이것이 다 자리인 것이다. … <1991. 5. 1>

… 문왕 때는 신봉어지(神封於地)였고 땅이 그 일을 맡았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자리를 보고, 짐을 지어도 자리를 보고 방위를 보았다. 지금은 전부 땅에 있지만, 앞으로는 신봉어인(神封於人)이며 이것이 도통이다. 엄청난 자리 공부이기에 24시간 공부에 한 사람이 잘못해도 그날 한 일은 헛일이 된다.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다. 그 자리를 지킨다고 꼭 그 자리에서 받는 것은 아니다. 자리를 다루지 마라. 도인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없다. 잘 믿으면 되는 것이고 자리가 없는 게 아니다. 세계 사람이 다 들어와도 자리가 남는다. 상제님께서 목석에도 기운만 붙이면 다 쓴다고 하셨다. 한 공부반이 하루 24시간을 맡는다. 그 안에 분·초·각이 다 있다. 그 숫자가 얼마나? 지금 공부는 체(體)이고, 분·초·각은 용(用)이다. 그래서 공부에 참석 못하더라도 자리는 많다. 공부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나 공부자는 잘해야 한다. 소홀히 하면 큰 죄다. … 공부를 할 때는 공부반 36명 모두에게 다 각자의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잊지 말고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그 책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신을 땅에 봉했는데 이제는 신봉어인(神封於人)이다. 신인상합(神人相合)이 되면 그것이 도통이다. 시간과 계절을 신이 맡아서 잘하니 우리도 시간을 믿고 계절을 믿는 것이다. 앞으로는 사람이 맡는다. 그러니 36명 모두 각자의 자리에 대한 책임이 크다. <1991. 5. 25>

… 지금은 신봉어지(神封於地)라서 방위나 자리를 꼭 지키고 해나가는 것이다. 신명이 땅에 자리를 정하고 있다. 신명이 그 자리를 뜨지 않는다. 그 자리를 꼭 지킨다. 앞으로는 신봉어인(神封於人)이므로 신명이 사람에게 봉해진다. 그러므로 우리 공부는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 지금은 모두 땅에 자리를 정하고 있기에 그 자리를 꼭 지키고 나가야 한다. … <1991. 5. 30>

… 이 공부가 후천 정역도수 5만 년을 짜는 것이다. 후천 5만 년이 이것

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은 주역시대인데, 문왕 때부터 현재까지 재앙이 생기는 것은 이전에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옷을 만들 때 뭐 하나 잘못하여 태워서 겨우 맞았는데, 입고 다니면 태운 곳이 먼저 망그러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 복희씨는 신명을 천상의 옥경대, 하늘에 봉했고, 문왕은 영대를 뒤서 천지신명을 모셨다가 땅에다 봉했고, 이번에는 천지신명을 모신 데가 우리 도장이고 사람에게 봉한다. … <1992. 2. 15>

… 복희 선천시대와 문왕 후천시대가 있고, 복희는 봄 시대이고 문왕은 여름 시대다. 우리의 진리가 정역으로 가을이다. 복희씨 때는 용마(龍馬)가 하수(河水)에서 하도(河圖)를 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모든 이치를 만들었고 알게 되었다. 천지의 이치가 모두 하도에 담겨있었다. 문왕 때는 거북이[神龜]가 낙수(洛水)에서 지고 나왔던 낙서(洛書)에서 천지의 이치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세상에 나오고 알았다. 이제 앞으로는 연원도통(淵源道通)이다. 천지조화나 모든 이치를 통하는 것이다. 연원이라는 말도 못 연(淵), 근원 원(源), 물을 이야기한다. 즉 못을 근원으로 한다. 모든 이치는 물에서 나오는 것이다. 용마나 거북이나 모두 물에서 하도와 낙서를 지고 나왔다. 이번에 연원이라는 것은 상제님께서 나오는 곳이다.

금산사에 미륵불이 있는 곳을 처음에는 용소(龍沼)라고 했다. 용이 아홉 마리 살았다는 연못인데 진표율사가 용소를 메워서 미륵을 모시라는 계시를 받아, 계시대로 그곳을 메워 금불(金佛)을 봉했다. 금불은 미륵을 말함이다. 현몽을 했는데, 현몽이란 계시를 말한다. 무엇으로 메웠느냐 하면 솥이다. 전국에 눈병이 돌게 되서 눈이 아픈 사람이 그 연못에 솥을 던져 메우면 병이 나왔다. 거기에 무쇠로 된 솥을 엮고 솥 위에 도금을 한 미륵을 세웠는데 시루다. 시루가 솥 위에 얹힌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한 것이다. 미륵 좌우 양쪽에 보호불들을 세웠는데, 미륵과 가까이 있는 두 보호불은 좀 크고, 가 쪽의 두 보호불은 작다.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증산(甞山), 정산(鼎山)을 의미한다. 즉 三의 형태로 산이 두 개여서 양산(兩山)이니 날 출자(出字)이다. 출출명장이 양산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연원도통이다. 상제님께서 화천하실 때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는 말씀은 증산, 정산의 진리를 찾으라는 것이지 절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밖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모른다. 이 이치를 우리 대순의 도인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연원도통이란 근본이 용 못에 있음이며, 결국 근본과 이치가 증산·정산의 진리임을 말한다. 용소가 근본이고 용소는 물이다. 모든 이치는 물에서 나온다. 용마는 하수(河水), 거북이는 낙수(洛水), 모두 물에서 나왔다. 지금 와서는 연원에서 진리가 나온다. 원 근본은 못이다. 그래서 연원도통이라 한다. 네 연원, 내 연원하는데, 네 연원, 내 연원이 없다. 상제님·정산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연원이다. 도인은 상제님의 도인이니, 누구의 도인이 아니다. 앞으로는 연원도통이다. 후천 정역은 연원 도통이다. 복희 선천은 목덕(木德)으로 왕이 되었고 3·8 목(木) 봄 절후이며 목신사명(木神司命)이었다. 문왕은 여름 절후이고 2·7 화(火), 화신사명(火神司命)이다. 우리는 금신사명(金神司命)이다. 금(金)은 4·9, 서쪽이고 가을이며, 금신(金神)은 상제님을 말하며, 그래서 상제님께서 미륵금불에 오셨다. 불교에서 찾는 미륵은 상제님을 말한다. 이것을 진리라고 한다. ... <1992. 3. 7>

... 복희 선천에는 하늘에다 봉신(封神)을 하였고, 문왕 때에는 모든 운수가 땅에 있어서 땅에 봉신을 하였다. 방위를 보고 날짜를 보는 것은 신을 땅에다 봉했기 때문이다. 살아서는 집터를 보고 죽어서는 묘 터를 보고, 방위를 본다. 나도 방위나 시간, 위치를 세밀하게 본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 땅에 달려 있다. 앞으로는 정역시대다. 정역시대에는 모든 운수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봉신을 한다. 앞으로는 신봉어인(神封於人)한다. ‘상통천문하고 하달지리하고 중찰인사’라고 도통주(道通呪)에 있듯이, 앞으로는 사람이 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년·월·일·시·분·초·각까지 전부 사람이 맡는다. 천지를 다 운용해 나가는 것을 사람이 한다. 우리가 해나간다. 성·경·신으로 해야 한다. 도라고 보통 아는 작은 도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천지를 운용해나가는 것이다. ... <1993. 윤 3. 6>

... 개벽 초 태호복희씨 그 시대에 하수(河水)라는 물에 말이 나타났다. 신기한 용마(龍馬)가 나타났는데 그 용마의 등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개벽 초의 주인인 태호복희씨가 그것을 보고 연구해서 우주의 진리를 찾고 안 것이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요순우탕(堯舜禹湯)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도 물이다. 낙수(洛水)라는 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신기한 거북이가 나왔다. 문왕이 그것을 연구해서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알아 진리를 편 것이다. 이렇게 우주의 모든 이치, 진리가 다 물에서 나왔다. 이번에도 도통이 어디에 있냐 하면 물에 있다. 즉 연원에 있는 것이다. 물에서 도통이 된다. 그래서 연원도통이라 한다. 전라도 금산사의 그 자리가 바로 못이다. 용추가 있었는데, 이 못을 메우고 금불을 봉안했다. 여기에 상제님과 정산님의 이치가 들어있다. 이 못을 나무 숲으로 메웠고 거기에 숲을

없어 왔다. 술 위에는 시루가 없힌다. 금산사의 미륵은 좌우에 두 분씩 해서 지금 오불(五佛)이다. 미륵불이 山 형태로 세워져 있으니 출자(出字)로 되 산자(山字)가 둘이다. 구천상제님의 호가 증산(甞山)이시고, 술이 있으니 정산(鼎山)이 게셔야 한다. 도주님의 호가 정산이시다. 술과 시루만 있어도 안 된다. 물이 필요하고 불을 때야 한다. 두 분의 그 이치인 것이다. 그래서 증산·정산에서 도통이 나오는 것이다. 모든 진리라는 것은 물에서 나오고 물이 아니면 안 된다. 증산님, 정산님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연원이라 하고 도통이 여기 있는 것이다. 물이 아니면 낡고 자라고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 증산·정산에 의한 도통이다. 용추 못에 그분들의 진리가 있다. 그러니 그분들의 진리에 의해서 도통이 나오는 것이다. ... <1993. 7.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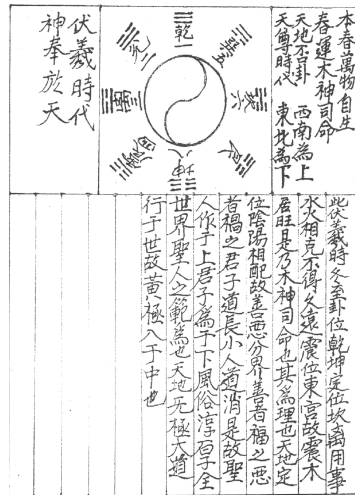
## 2. 『채지가』 「칠월식과」

... 복희선천(伏羲先天) 어느때고 춘분도수(春分度數) 되었으니  
 하도용마(河圖龍馬) 나설적에 천존시대(天尊時代) 천도(天道)로다  
 건남곤북(乾南坤北) 하울적에 이동감서(離東坎西) 되었구나  
 목신사명(木神司命) 하울적에 근본본자 봄춘자요  
 선천팔괘(先天八卦) 희역(羲易)인데 천지비괘(天地否卦) 되었더라  
 황극운(皇極運)이 열렸으니 구십(九十)이 중궁(中宮)일세  
 건곤정위(乾坤定位) 감이용사(坎離用事) 성인세계(聖人世界) 법이로다  
 문왕팔괘(文王八卦) 하지운수(夏之運數) 화신사명(火神司命) 여름하자(熱陰夏字)  
 이남감북(離南坎北) 지팔괘(地八卦)는 진동태서(震東兌西) 되었구나  
 수화기제(水火既濟) 마련하니 오십토(五十土)가 중궁(中宮)이라  
 희역(羲易)이 주역(周易)되니 음양난잡(陰陽難雜) 시대로다  
 중니여래(仲尼如來) 시위(侍衛)하고 영웅호걸(英雄豪傑) 도위(都尉)로다  
 선천운(先天運)이 지나가고 후천운(後天運)이 돌아온다  
 인존시대(人尊時代) 되었으니 주역(周易)이 정역(正易)되다  
 지천태괘(地天泰卦) 되었으니 금신사명(金神司命) 하실적에  
 가을가을(歌乙歌乙) 노래하니 추분도수(秋分度數) 되었구나  
 신유금풍(申酉金風) 찬바람에 만물성숙(萬物成熟) 좋은때라  
 초복중복(初伏中伏) 다지나고 말복운(末伏運)이 이때로다  
 곤남건북(坤南乾北) 하울적에 간동태서(艮東兌西) 되었구나  
 천지정위(天地定位) 하울적에 산택통기(山澤通氣) 되었도다  
 이칠화(二七火)가 중궁(中宮)되니 오십토(五十土)가 용사(用事)하네

수생화화생금(水生火火生金)하니 상극(相克)이 상생(相生)된다  
 갑건해(甲乾亥)가 되었으니 동(東)이 북(北)이 되단말가  
 무기(戊己)가 용사(用事)하니 불천불역(不遷不易) 될것시오  
 비운(否運)이 태운(泰運)되니 무극운(無極運)이 열렸구나  
 쇠병사장(衰病死葬) 없어지니 불로불사(不老不死) 선경(仙境)일세  
 유불선(儒佛仙)이 합성(合成)하니 삼인일석(三人一夕) 닮아서라  
 여름도수 지나가고 추분도수(秋分度數) 닳쳤으니  
 천하절후(天下節候) 개정(改定)할때 오장육부(五臟六腑) 환장(換腸)이라  
 수도복통(水土服痛) 앓을적에 임사호천(臨死呼天) 급하더라  
 구년홍수(九年洪水) 물밀듯이 몸돌릴틈 없었구나58) ...

### 3. 수서본 태극도통감 부록

本春萬物自生 春運木神司命 天地否卦  
 天尊時代 西南爲上 東北爲下  
 伏羲時代 神奉於天  
 此伏羲時 冬至卦位 乾坤定位 坎離用事  
 水火相克 不得久遠 震爲東宮 故震木居  
 旺 是乃木神司命也 其爲理也 天地定位  
 陰陽相配 故善惡分界 善者福之 惡者禍  
 之 君子道長 小人道消 是故聖人作于上  
 君子爲于下 風俗淳厚 全世界 聖人之範  
 圍也 天地無極大道行于世 故皇極入于  
 中也59) [이(팔괘도)는 복희의 때로 동  
 지의 괘위이니, 건곤(乾坤)이 자리를  
 정하고 감리(坎離)가 용사(用事)하여  
 수화(水火)가 상극(相克)하니 구원(久  
 遠, 오래됨)을 얻지 못한다. 진(震)이  
 동궁(東宮)이 되어 진(震) 목(木)이 왕  
 성함에 머물므로 이가 곧 목신(木神)이  
 사명(司命)하는 그 이치이다. 천지가 자리를 정하고 음양이 서로 짝을 지  
 으니 선악이 경계를 나누어서 선한 자는 복을, 악한 자는 화를 받고 근자



<그림 1> 수서본 복희팔괘도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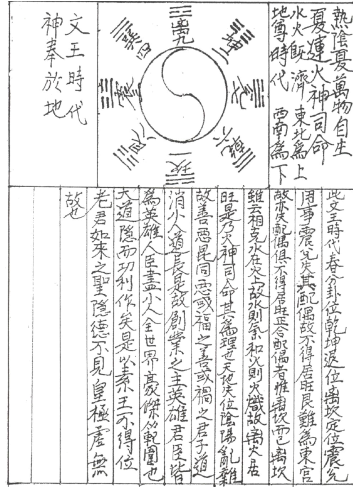
58) 병기된 한문은 상주동학교당의 『동학가사』를 활용하지 않고 대순진리회 전통에서 비정된 것을 활용하였다. 『체지가』 (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1978), pp.24-25.

59) 『태극도통감』 수서본, p.11.

의 도는 장(長)하고 소인의 도는 소(消)한다. 따라서 성인이 위에서 일어나고 군자가 아래에서 행하니 풍속이 순후하여 전 세계가 성인의 범위(範圍)이다. 천지무극대도가 세상에 행해지니 황극(皇極)이 중(中)에 들어간다.]

熱陰夏萬物自生 夏運火神司命 水火既濟  
地尊時代 東北爲上 西南爲下  
文王時代 神奉於地

此文王時代 春分卦位 乾坤退位 離坎定位 震兌用事 震兌失其配偶 故不得居旺 艮難爲東宮 故亦失配偶 俱不得居旺 正合配偶者 惟離坎而已 離坎雖云相克 水在火上 故水則氣和 火則火熾 故離火居旺 是乃火神司命 其爲理也 天地失位 陰陽亂雜 故善惡混(混)同 惡或福之 善或禍之 君子道消 小人道長 是故創業之主英雄君臣皆爲英雄 人臣盡小人 全世界豪傑範圍也 大道隱而功利作矣 是以素王不得位 老君如來之聖 隱德不見 皇極虛無故也<sup>60)</sup> [이(팔괘도)는 문왕의 시대로 춘분의 괘위이다. 건곤이 자리에서 물러나니 이감(離坎)이 자리를



<그림 2> 수서본 문왕팔괘도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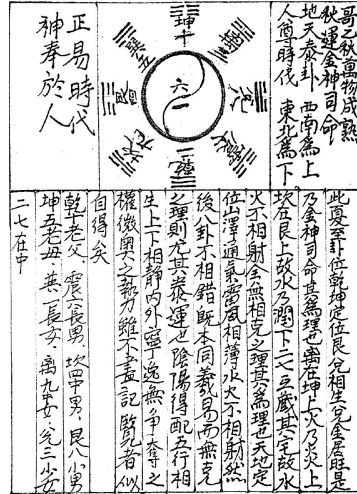
정하고 진태(震兌)가 용사(用事)를 한다. 진태는 그 배우를 잃었기에 왕성함에 머물지 못하여 간(艮)이 어렵게 동궁이 되는데 또한 그 배우를 잃어 모두 왕성함에 머물지 못한다. 바르게 짝과 합한 것은 오직 이(離)와 감(坎)일 따름이다. 이감(離坎)을 비록 상극이라 하지만 수(水)가 화(火)의 위에 있어 수는 곧 기(氣)와 화합하여 화가 곧 성하여 이화(離火)가 왕성함에 머무니 이것이 곧 화신이 사명하는 그 이치이다. 천지가 위치를 잃고 음양이 난잡하여 선악(善惡)이 혼동되어 악도 혹 복을 받고 선도 혹 화를 받으니 군자의 도는 줄고 [소(消)] 소인의 도가 늘어난다 [장(長)]. 그러므로 창업의 주가 영웅이니 군신이 모두 영웅이지만 신하는 모두 소인(小人)이다. 전 세계가 호걸(豪傑)의 범위여서 대도는 은거하고 공리(功利)가 일어난다. 따라서 소왕(素王, 왕자는 아니나 왕자의 덕을 갖춘 사람)은 자리를 얻지 못하고 노군(老君)과 여래(如來)의 성인도 덕을 감추고 보이지 않으니 황극이 비고 없기 때문이다.

60) 『태극도통감』 수서본, p.12.

哥乙秋萬物成熟 秋運金神司命 地天泰卦 人尊時代 西南爲上 東北爲下 正易時代 神奉於人

此夏至卦位 乾坤定位 艮兌相生 兌金居旺 是乃金神司命 其爲理也 離在坤上火乃炎上 坎在艮上 故水乃潤下 二七互藏其宅 故水火不相射 全無相克之理 其爲理也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 然後八卦相錯 既本同義易而無克之理 則尤其泰運也 陰陽得配 五行相生 上下相靜 內外寧逸 無爭奪之權 微奧之勢 雖不盡 記覽者似自得矣

乾十老父, 震六長男, 坎四中男, 艮八小男, 坤五老母, 巽一長女, 離九中女, 兌三小女, 二七在中<sup>61)</sup> [이(팔괘도)는 하지의 괘위이다. 건곤이 자리를 정하고 간태가 상생하니 태극(兌金)이 왕성함에 머물러 곧 금신(金神)이 사명(司命) 함이니 이것이 리(理)가 된다. 이(離)가 곤(坤) 위에 있어 불이 곧 타서 오르고, 감(坎)이 간(艮) 위에 있어 물이 곧 흘러서 내리니, 이칠(二七)이 서로 그 집을 감추어 수화가 서로 쏘지 않게 되어 완전히 상극의 리가 없음이 그 이치가 된다. 천지가 정위(定位)하고 산택이 통기(通氣)하고 너풍이 서로 부딪히고 수화가 서로 쏘지 않은 연후에 팔괘가 서로 등지지 않으니 근본은 희역과 같고 무극지리이니 한층 더 태운(泰運, 태평한 운수)이다. 음양이 짝을 얻고 오행이 상생하고 상하가 서로 정(靜)하며 내외가 안녕하고 평안하니 쟁투의 권이 없는 미묘한 세(勢)이다. 비록 다함이 없어도 기억하고 보면 스스로 얻는 것과 같다. 건십노부, 진육장남, 감삼중남, 간팔소남, 곤오노모, 손일장녀, 이구중녀, 태삼소녀, 이칠재중.]



<그림 3> 수서본 정역팔괘도와 해설

61) 『태극도통감』 수서본, p.13.

##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_\_\_\_\_,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 \_\_\_\_\_, 『훈시: 대순회보훈시 15편』, 여주: 대순진리회출판부, 2016.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도전 훈시』, 미발행 자료.
- 『태극도통감』, 부산: 태극도본부, 1956.
- 『태극도통감』 수서본.
- 『채지가』, 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78.
- 편찬실 편, 『채지가』, 부산: 태극도본부, 1967.
- 『동학가사 I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周易』
- 『周易本義』
- 『漢書』
- 『說文解字』
- 『正易』
- 김연재, 「천지개벽의 역학적 사유에서 본 대순사상의 후천개벽과 선천주의적 세계」, 『대순사상논총』 46, 2023.  
<https://doi.org/10.25050/jdaos.2023.47.0.1>
- 박병훈, 「〈채지가〉 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3, 2017.  
<https://doi.org/10.22538/jnghss.2017..13.99>
- 박상규 · 박선민 · 이호열, 「『태극도통감』 수서본 고증: 팔괘도와 해설을 중심으로」, 『대순종학』 7, 2024.  
<https://doi.org/10.23209/jods.2024.7.1>
- 윤재근, 「음양합덕 일시론」, 『대순사상논총』 2, 1997.
- 이봉호, 「『태극도통감』의 도상을 통해 본 대순사상의 ‘선·후천’ 개념」, 『대순사상논총』 47, 2023.  
<https://doi.org/10.25050/jdaos.2023.47.0.65>

- 이정호, 『원문대조 국역주해 정역』,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8.
- 이찬구, 「역과 현대사회: 한국 역학사상의 개관」, 『신종교연구』 5, 2001.  
\_\_\_\_\_, 『주역과 동학의 만남』,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0.
-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_\_\_\_\_, 『천지공사론』,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 정병화, 「대순사상의 대대성 원리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 『대순사상논총』 42, 2019.  
<https://doi.org/10.25050/jdaos.2019.33.0.63>
- 차선근, 「정역사상과 대순사상의 비교연구: 우주론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0, 2010.  
<https://doi.org/10.21457/kars..60.201009.35>
- 최영진, 「대순사상의 역학적 조명: 종지(宗旨)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0, 2009.
- 최원식, 「동학가사 해제」, 『동학가사 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홍범초 엮음, 『남조선 뱃노래』, 서울: 한누리미디어, 2000.

■ Abstract

**Prolegomena to the Daesoon Study of Changes**  
**(大巡易學): Focusing on Primary Sources**

**Park Sang-kyu**

Senior Researcher, The Asian Institute for Religions

This study serves as a foundational investigation aimed at establishing Daesoon Study of Changes (大巡易學) as an independent academic field by excavating and systematizing Daesoon-specific discourse on Yijing Studies (易學) inherent within the Daesoon faith tradition. Whereas previous scholarship has largely confined itself to interpreting Daesoon Thought through the external framework of traditional Yijing (易經 “I-Ching”) theory centered on the *Zhou Yi* (周易, Book of Changes of the Zhou Dynasty), this article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applying such an extrinsic interpretive lens. Drawing on Yijing-related texts dispersed across the scriptures and discourses of Jeungsan, Jeongsan, and Wudang, this study offers a preliminary account of the discursive structure of the Daesoon Study of Change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core of the Daesoon Study of Changes lies in two interrelated transformations: the historical succession of cosmic change (變易) moving from ‘*Hiyeok*’ (義易 Fuxi’s Book of Changes) through

'*Juyeok*' (周易 the Zhou Book of Changes) to '*Jeongyeok*' (正易, the Corrected Book of Changes), and the corresponding shift in the structure of divine investiture (封神) from "spirits invested in Heaven" (神封於天) to "spirits invested in Earth" (神封於地), and finally to "spirits invested in Humanity" (神封於人). In particular, the stage of '*Jeongyeok*' and its principle of spirits invested in humanity signify the realization of Divine-Human Harmonization (神人調化), wherein human beings actively embody cosmic order through the harmonious union of yin and yang with the spirit world. The iconographic symbolism of Geumsansa Maitreya Hall, the numerological system of the '*Jeongyeok*' trigrams, and the discourse on divine investiture in Wudang's teachings converge organically to constitute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Daesoon Study of Changes.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Daesoon Study of Changes is not a mere theoretical system but a comprehensive framework of thought that permeates the soteriology, cosmological renewal, and praxis of the Daesoon faith.

**Keywords:** The Daesoon Study of Changes, Cosmic Transformation (變易), Divine Investiture (封神), Spirits Invested in Humanity (神封於人), Divine-Human Harmonization (神人調化), *Jeongyeok* (正易)